

Sulwhasoo

Vol.55 March/April 2013





穿
雪花秀

윤기의
피부
미안피니셔



윤기 있게 마무리하세요.
 온기를 품은 햇살이 화사한 꽃을 틔웁니다.
 봄이 빛남을 드러내듯, 우리 얼굴도 생동감
 넘치는 윤기가 흐르면 좋겠습니다. 설화수의
 미안피니셔에는 단순한 피부 표현의 반짝임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의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부의 밝기와 윤기, 수분량과 투명도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윤기, 바로 '생윤기'에
 대한 옳은 답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력이
 발화하는 봄, 미안피니셔와 함께하세요.
 당신의 피부도 깊은 속에서부터 격이 다른
 귀한 윤기가 싹틀 거예요.

손그림과 손글씨 이규복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에
 단계에서 바르는 제품으로 녹차와
 발효한 홍삼 성분이 주는 피부 재생
 효과가 피부 속 윤기를 되찾아
 얼굴의 격을 높여 주는 피니셔
미안피니셔





백색 한지, 공간을 구분 짓되 열어준다

조선 종이라고 불리는 한지는 닥나무 껍질과 깨끗한 물을 이용해 한국 고유의 기법으로 뜬 종이다. 한지의 순백색 그 자체가 땅과 흙, 햇빛으로부터 온 산물이다. 그렇기에 완성된 한지는 그저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 자연미를 지니고 있다. 한지로 발을 만들어 걸면 종잇장의 보이지 않는 구멍 사이로 빛과 바람이 서로 통하고 머금으며, 공간은 나눈 듯 나뉘지 않는다. 집 공간을 자연과 구분 짓지 않으려 했던 선조들의 자연관이 하얀 한지 발에 담겼다.

연임 모티프의 한지 발은 한지 공예가 원영 김정순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가장 돋보이고, 어느새 스며드는 백색

백색은 부드러운 보자기로, 단아한 백자 항아리로, 선비의 도포로, 질기고 고운 실로 그 형태와 질감을 달리하며 무던히도 변신한다. 어떤 색과 견주어도 드러나고 또 어느 색과도 어우러져 스며들고 마는 백색 물건은 그 수수함과 담백함 덕분에 결국엔 가장 돋보인다. 오방색으로 채색하는 단청마저도 백색으로 표현되면 더 화려해지기 마련. 이것이 바로 백색의 힘 아닐까.

자정미백에센스는 열로 인해 착색해진 피부를 속부터 다스려 맑고 화사한 안색으로 기뻐 준다. 한지로 만든 단청 오브제는 한국의 열을 전하는 미츠의 작품, 비단 누비 보자기는 차이 소장품, 김익영 작가의 백자 편호는 우림요.





백색, 봄나들이가다

동근 테두리에 살을 대고 종이를 바른 뒤 기름에 절여 만드는 전모는 조선의 여인들이 나들이를 할 때 쓰던 일종의 모자이다. 우산처럼 펼쳐진 모양 덕분에 얼굴을 가릴 수 있으면서도 고개를 살포시 들어 봄이 피워낸 꽃과 나무를 마음껏 볼 수 있었으리라. 백매화, 목련, 수선화 등 하얗게 핀 꽃나무와 풀꽃 사이로 사뿐히 지나가는 여인의 설레는 마음이 백색 전모에 담겼다. 백색 전모와 꽃 모티프 머리 장식은 모두 차이 소장품. 표지의 백자 화병은 정소영의 식기장, 백자 문주는 김익명 작품으로 우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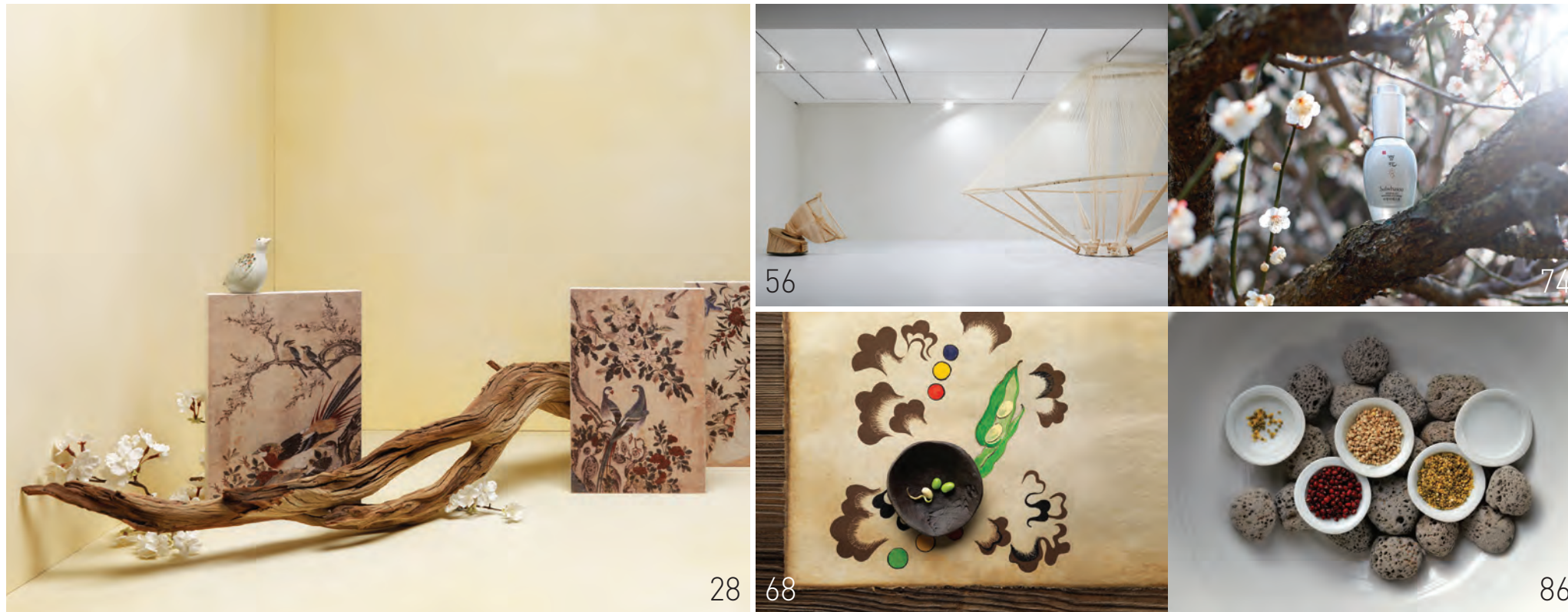
비어 있으나 꼭 찬 이상향, 소색(素色)

White is undoubtedly the color of the Korean people. Here, white refers to the natural white color that is not the result of dying. In the dictionary, it means 'naturally white.' Since the olden times, white has been used to describe white clothes without ornamentation, a bare face without make-up, humility without pretense, and white snow. Fluorescent white is a modern tone; the white color loved by the Korean ancestors was the 'untreated and pure background tone created by nature' that can be found in cotton, hemp, kaolin from weathered feldspar, and salt extracted from seawater by winds and sunlight. As is true with nature, white is the mysterious tone that is 'empty yet full.' The negative space in traditional paintings gives us some room to think, the flawlessly white coats of noblemen represent their integrity, and the white hue of the humble round porcelain tells us the stage of its maturity. Considering that white was the color of the first outfit that the Korean ancestors wore when they were born, and the last outfit that they wore when they returned to nature, white must have been the gateway to the ideals pursued by the Korean people.

우리 민족의 색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소색(素色)이다. 사전을 참고하면 흰 소(素)자는 '본래 그대로 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예부터 흰 옷을 소의(素衣),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소안(素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음을 소박(素朴), 흰 눈을 소설(素雪)이라 했다. 우리 선조들이 사랑했던 흰색은 목화가 만들어낸 무명, 대마가 만들어낸 삼베, 바위 속의 장석이 풍화를 만나 만들어낸 고령토, 바닷물이 바람과 태양을 만나 만들어 낸 소금 등에서 볼 수 있는 소색인 것이다. 자연이 그러하듯이 소색은 '비어 있는 그러나 꼭 차 있는' 불가사의한 색이다. 옛 그림에서 절묘하게 비어 있는 여백은 생각할 틈을 주고, 선비의 흰 도포에서는 고결함을 엿볼 수 있으며, 동근 백자는 완숙미의 경지를 일러 준다. 태어나 처음 입는 옷도, 수명이 다해 자연으로 돌아갈 때 입는 옷도 소색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소색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이상향의 관문 아니었을까.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울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종이나무갤러리 (02-766-3397), 차이(02-333-6692), 우일요(02-763-2562), 미즈(070-7557-9491)





Sulwhasoo

March/April 2013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에스려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미학자를 매료하다	'구수한 큰 맛', '무기교의 기교'를 지닌 한국의 미를 말하다	08
집 안 단장	봄 찾아온 반가운 손님	10
몸단장	여인의 향기	12
한국 문화 읽기	경대 Mirror Stand	14
피부 섬기기	어린 피부로 해사하게 채우다	16
옛살을 돌아보다	옛 여성들에게 쇼핑 품목이 아닌 노동의 대상이었던 '우리 옷'	20
격조 높은 삶	봄이 예 들어왔다	26
예지미로 새날을 열다	옛 선비들의 자연주의	28
어우러지다	봄의 마음, 그림에 담다	30
살펴보다	봄의 꽃이 피어나는 꽃담들	36
세밀하게 보다	별서 정원에서 마음을 살펴 닦아내다	38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발레리나 황혜민, 무명천 같은 그녀	46
월드 헤리티지	피렌체의 감성, 리차드 지노리	52
아트 클래스	물질에 혼을 불어넣는 작가 임충섭	56
작가를 만나다	겸재와 고호의 만남을 주선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62
설화보감	맡고 깨끗하게 하는 힘, 그 싹을 틔우다	68
설화수의 세계	섬들에 매화 향기 하얗게 번지네	74
국악기행	소백산 병풍 아래 앉아 듣는 우리 소리	78
설록다원	별들의 정원, 대지의 숨결이 다가오다	84
미색보감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첫 걸음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Sulwhasoo's designs convey the color aesthetics of South Korea based on the Five Colors.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2013 Mar/Apr issue showcases the discovery in the traditional aesthetics of the sophisticated white applied to the Snowise Line, which has been rewriting the history of Sulwhasoo Whitening since it was launched in 2002. You can feel the value of Snowise EX Whitening Serum, which clearly brightens women's faces in the elegant white of the Korean tradition.

설화수의 디자인에는 오방색에 기초한 우리의 색채 미학이 들어 있다. 2013년 3/4월호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2002년 출시된 이래 설화수 미백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자정 라인의 디자인에 적용된 단아한 백색을 전통 미감에서 찾아냈다. 우아한 우리 전통 백색에서 여인의 얼굴을 투명하게 밝히는 자정미백에센스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다.

●발행인·사경배 ●편집인·권영소 ●발행처 (주)이모레퍼니컬·서울시 중구 창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태윤희 02)709-5525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희성, 문비송 디자인·조윤형 마케팅·윤여찬 ●발행일·2013년 3월 1일(통권 제55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모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정현

(Sulwhasoo)는 한국인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수한 큰 맛’, ‘무기교의 기교’를 지닌 한국의 미를 말하다. 우현(又玄) 고유섭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
© 두어먼아트

우현 고유섭 선생은 한국 근대 미술의 태두이자 한국의 미를 최초로 주장한 유일무이한 미학자이며 한국의 미를 ‘구수한 큰 맛’, ‘무기교의 기교’ 등으로 정의한 한국 미술계의 큰 별이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던 시절에 한국의 미술사와 미학을 서양의 학문적 방법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의 생애가 고작 사십 년이었기에 존재 가치가 더 또렷하게 각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짧은 생애 동안 한국의 미와 한국의 미술을 분신처럼 사랑한 한국이 낳은 진정한 미술 이론가라 하겠다. 학계에서 우현 고유섭은 근대 이후 최고의 미술사학자이자 미학자로 인식되어 왔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유섭을 이해하기보다는, 최초로 한국미의 특징을 정의했고 40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미학자이자 미술 이론가 및 한국 근대 미술사학의 태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한국의 미를 ‘구수한 큰 맛’, ‘무기교의 기교’ 등으로 규정했다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활동한 시대가 일제 강점기였음을 상기하며 무조건 후한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고유섭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100여 편의 글을 남길 정도로 우리나라 미와 미술사 연구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대표적인 저술은 1943년에 출판된 <조선탑파의 연구>다. 여기서 그는 미륵사지 석탑이 정림사지 석탑을 시대적으로 앞설 수 없다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주장에 대해 이견(異見)을 제시했다. 즉 미륵사지 석탑은 층급형 받침이 전탑(轉塔)의 기법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 옥첩(屋檐)과 받침의 물림이 광활하여 상층으로 갈수록 개수가 늘어난다는 점, 받침석의 높이도 신라의 여러 석탑과 달리 상하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전탑의 형식을 빌린 것이 아니라 벽돌쌓기 기법을 이용한 본격적인 전탑임을 강조하면서 미륵사지 석탑이 정림사지 석탑보다 시대적으로 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저술 <한국미학미술사 논고>는 한국의 유적과 미를 최초로 미학 및 미술사적 방식으로 접근한 책이다. 그는 삼국에 대해서는 애니미즘에서 출발한 상주주의적인 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신라의 미에 대해서는 고전적 이상미가 응축된 고전주의적 미와 귀족 및 개인의 화려함과 적조미 등이 낭만주의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등 매우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조선 말의 미술에 대해 국운이 다하고, 일본의 압제가 진행되는 시대여서인지 ‘퇴보의 미술’로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와 말기에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일어난 진부한 문인 정신의 구현에서 비롯된 중국화 경향을 염두에 둔 언급인 듯하다. 그가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기에 조선 후기와 말기의 미술 문화와 미학 사상을 예리한 관점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유섭 선생은 일제의 침략을 불러온 조선 말의 문화를 ‘병든 문화’라고 진단하였기에 조선의 미술을 퇴보의 미술로 규정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는 민족적 감정이 섞인 비학구적 서술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였다. 이런 연유로 객관성 있는 ‘체계적 미술사’를 쓰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철학과 심리학, 교육학, 미학, 문학, 영문학 등 다양한 공부를 한 끝에 한국 최초로 서양식 학문 접근 방법에 따라 제대로 된 한국의 미술 이론서와 글들을 발표하고자 했다. 이처럼 우현 고유섭 선생은 열악한 시대 상황에서도 부단히 노력한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미술사가 및 미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정준석미술평론가,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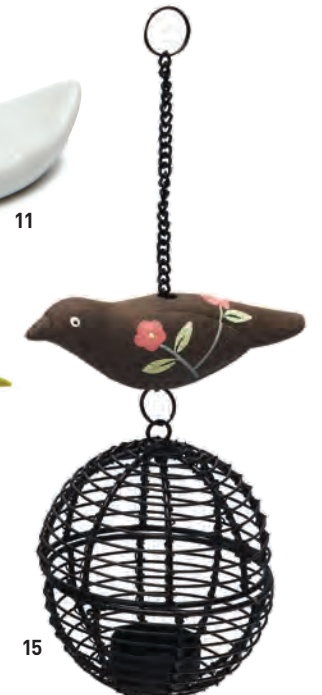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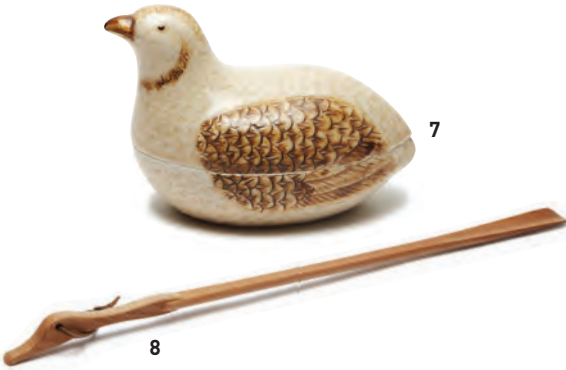


1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석탑(국보제11호)
2 미술사학자였던 우현 고유섭(1905~1944). 경성제국대학원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개성부립박물관 관장, 연희전문과 이화여전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 탑파의 연구>, <한국 미술사 논고> 등이 있다. 개성부립박물관장 시절 관장실에서 집필중인 그의 모습.



봄 찾아온 반가운 손님

바람의 상징이자 하늘로 오르는 신의 중개자, 새. 기분 좋은 지저귀음이 가득한 새 모티프로 꾸미는 햇살 가득한 봄날의 집 안 단장.



1 오선지가 그려진 새 모티브의 후크는 덴스크, 2 유려한 선의 명함꽃이는 자연공감도, 3 통통한 몸매의 새 향초는 재미갤러리, 4 재활용 나무와 인체에 무해한 페인트로 만든 벽 장식품은 코즈모갤러리, 5 화목한 가족, 다산, 부부의 정을 나타내는 조류를 패턴화한 컵받침은 길드24, 6 스웨덴의 전통적인 접시 닷이 천은 바사르, 7 메추리 합은 김익영 작품으로 우일요, 8 나무의 따뜻한 질감에 귀여운 오리 얼굴이 더해진 구둣주걱은 티더블유엘.

긴 겨울이 가고 어린 잎들이 나뭇가지에 싹을 틔웠다. 그리고 이내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봄, 봄, 봄' 봄이 왔으며 지저귀는 새소리다.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신비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 선인들도 새를 좋아하여 자수는 물론이고 그림과 각종 공예품에 한 쌍의 꿩, 원앙, 봉황, 물오리 등을 즐겨 사용했다. 예쁜 색채와 새가 지닌 의미 때문인데, 그 예로 제비는 수가 겹치는 날(음력 9월 9일)에 강남에 갔다가 수가 겹치는 날(음력 3월 3일)에 돌아오는 새라고 해서 길조(吉鳥)로 여겼다. 따라서 제비가 집에 들어와 처마에 등지를 짓고 새끼를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또한 서로 부리를 비벼 대는 한 쌍의 원앙은 행복한 부부 생활의 상징이었기에 부부가 함께 쓰는 이불과 베개를 '원앙금침'이라 하였다. 짧은 다리로 충충걸음을 하며 뛰다가 날렵하게 날아 오르는 새를 모티프로 한 귀여운 소품들로 집안 단장을 해보자.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운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이영 도움 주신 곳 길드24(010-2240-0724), 덴스크(02-592-6058), 루밍(02-6408-6700), 바사르(070-8727-9712), 에다소스(054-371-0371), 여기담기(018-251-8646), 우일요(02-763-2562), 자연공감도(02-762-5431), 재미갤러리(02-549-2132), 코즈모갤러리(02-3446-0889), 티더블유엘(070-4223-0151)





여인의 향기

선, 결, 색으로 말하는 소품은 여성미를 더욱 부각시켜 준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된 레이스, 파스텔 색조의 꾸밈 소품들.



1 쉬폰 소재의 꽃과 진주 장식 헤어핀은 비아케이 스튜디오. 2 꽃장식과 진주로 꾸민 반지는 비아케이 스튜디오. 3 한복 치마를 모티프로 만든 시스루 치마는 박혜리공방. 4 동근 고리를 사용해 우아함을 나타낸 목걸이는 최다니엘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5 문창살을 다양한 레이스와 자수로 표현한 클러치는 이자남 작품으로 쿠미오리. 6 흰색 망에 진주를 담아 아련하게 표현한 귀걸이는 누브티스. 7 오간자 천을 사용해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표현한 헤어밴드는 길드24.

옛날 양가집 규수들은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살았다. 수를 놓고 바느질을 하며 긴 겨울을 보낸 여인들은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온 산에 분홍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하루쯤 당당하게 '꽃놀이'를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봄이 되면 여성들의 설렘이 한층 커진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 꽃피는 봄, 여성의 몸단장은 고운 채색의 비단 한복이 주를 이루었다. 무늬를 넣기도 했고 화려한 노리개로 그 멋을 더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 여인들의 몸단장은 훨씬 과감해졌다. 지나친 노출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공기처럼 가벼운 시스루(속이 비치지 않는 옷)에 손맛이 느껴지는 패브릭을 덧입히거나 달달한 향기가 날 것만 같은 파스텔 색조의 소재, 섬세한 레이스가 드러나는 소품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해 준다. 다양한 직조 기법과 소재를 사용해 우아한 멋을 살린 소품들을 만나 보자. S

에디터 문비승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길드24(010-2240-0724), 고세보 닷컴(02-2235-6168), 누브티스(02-963-0346), 박혜리공방(02-542-4692), 비아케이 스튜디오(02-540-7453),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아이루페(02-784-0118), SW블러썸(070-7434-5098), 플라티파트먼트(070-4236-6362), 쿠미오리(02-2051-1213)



8 천에 걸어 연출한 꽃 코사지는 SW블러썸. 꽃 장식 진주목걸이와 깃털장식의 헤어핀은 비아케이 스튜디오. 9 로코코 시대풍의 블랙레이스와 고급스런 수술장식이 포인트인 장우산은 고세보 닷컴. 10 버선코를 모티프로 누드톤의 색감과 발 등이 비치는 메쉬밴드가 여성적인 웨지힐은 플라티파트먼트. 11 화려한 왕궁 안의 대리석을 모티프로한 고급스러운 브로치는 길드24. 12 마스크도 남다르게, 레이스 마스크는 박혜리공방. 13 여성스러우면서도 모던함을 잃지않은 팔찌는 누브티스. 14 장미문양을 모티프로 한 목걸이형태의 돋보기는 아이루페.

경대 Mirror Stand

단아하고 정갈한 매무새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여인들의 애장품.



깨끗하게 닦아 낸 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여성은 대개 옷매무새도, 얼굴빛도 단정하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노랫말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 '거울을 보다'라는 것은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현대뿐만 아니라 옛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거울은 중요한 존재였다. 단아하고 정갈한 매무새는 당시 여성에게 기본적인 생활 지침이나 다름없었고, 몸단장을 확

인할 수 있는 거울과 거울을 지탱하는 지지대에 서랍을 갖추어서 화장 도구 등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경대'는 여인들이 머리맡에 두고 썼던 생활 필수품이었다. 경대는 좌경(座鏡)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에 유리 거울이 전래되었을 때 빗집 내부 상판에 거울을 부착한 것으로, 빗, 비녀 등을 넣어 두던 빗집이 발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대중화된 듯하며, 그 이전 고려 시대에는 거울 걸이에 거울을 걸어 놓고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화장하였다. 대부분 동양에서는 좌식을, 서양에서는 의자식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경대라고 하면 좌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의자식 경대는 화장대라고 하여 따로 구분한다.

우리 전통의 좌식 경대는 여인의 내외미를 비추던 물건답게 상판과 여닫이 문, 서랍 등에 고상한 장식을 넣었고 자수, 황금 장식을 하기도 했다. 문양으로는 원앙·십장생·쌍학·길상문(吉祥文)이 많다.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 소품에는 예술 작품과는 또 다른 감수성이 담겨 있다. 사용하는 이를 배려한 최적의 물건이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생활에서 사용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경대야말로 실용적인 동시에 쓰는 이의 취향을 담아 장식적 멋을 고루 갖춘, 생활에서 사용하는 즐거움이 담뿍 담긴 목가구다. 옛 그림에 나오는 어느 규수의 수줍은 미소와 곱디 고운 화장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머리맡 경대 앞에서 수백 번 웃음 지어 보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도움 주신 곳 담연(02-546-6464)

Women who carry clean and clear mirrors usually wear clean clothes and have fair faces. There is a song about a woman who doesn't look at herself in the mirror. 'Looking at oneself in the mirror' symbolizes femininity for women. In the old times, mirrors were an important part of women's lives. Elegance and fairness were basic concerns for women and the mirror stand with a mirror, a mirror support, and a drawer to hold the makeup tools were daily essentials that women kept next to their beds. The mirror stand evolved from the jewelry box designed to hold brushes and hair accessories. The mirror was attached to the inside of the lid when the glass mirror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seemed to have become popular during that period. Women in the East used mirror stands and usually sat on the floor while women in the West used vanity cases and sat on the chair.

The traditional mirror stand of Korea did not come in various designs, but as it was used to reflect women's beauty, it was decorated with sophisticated ornaments on the top, lid, and drawers, sometimes with lacquer, red painting, embroidery, and gold. The most popular patterns included mandarin duck,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a pair of cranes, and the pattern of good fortune. The everyday commodities of Korean ancestors conveyed sentimentalit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artworks. They conveyed the pleasure of making objects or environment most considerate of users and the pleasure of using them every day. The mirror stand is a wooden piece of furniture that is practical and designed with beautiful decorations for the pleasure of users.



어린 피부로 해사하게 채우다

뷰티 트렌드의 핵심은 보다 간편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지금은 채담 퍼펙팅케이크파운데이션으로 보다 간편하게, 여민마스크로 보다 효과적으로 어린 피부로 화사하게 피어날 시간이다.

담장가인(澹粧佳人)이라는 말이 있다. 담백하고, 수수하게 화장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다. 또, 화용월모(花容月貌)라는 말이 있다.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담백하게 화장하여 마치 봄에 핀 매화꽃이나 복사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되고자 한다. 이는 미인이란, 일부러 짙은 화장으로 꾸며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피부가 드러났을 때 꽃처럼 보이는 여인'을 이르기 때문이 아닐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십대와 이십대에는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빛깔과 라인이 또렷한 얼굴을 유지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피부는 처지고 빛을 잃는다. 밝은 화사한 봄날이지만, 거울 속에 보이는 내 얼굴은 탄력이 떨어져 커 보이고 칙칙해졌다고 느낀다면 어리고 해사한 피부에 한 발 다가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숨에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피부 표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설화수의 채담 퍼펙팅케이크파운데이션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사함을 채워 주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마치 내 피부처럼 느껴져 답답함이 없다는 것. 무거운 왁스가 아닌 가볍고 촉촉한 '크리미 멜팅 콤플렉스'를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얇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퍼프와 내용물 사이에 스크린 망이 들어 있는데, 이 망을 통해 최적의 양으로 걸러진 파운데이션 입자가 피부에 밀착되어 과하지 않은 담백한 메이크업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간편함이다. 팩트 타입의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인 채담 퍼펙팅케이크파운데이션은 들고 다니는 파운데이션. 하나만 사용해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한 화장이 가능하다. 채담 퍼펙팅케이크파운데이션에 담긴 선암사 매화

파운데이션과 팩트의 기능을 결합해 편리한 채담 퍼펙팅케이크파운데이션은 부드럽고 촉촉한 크림타입의 내용물이 피부에 밀착되어 온종일 평온한 해사함을 선사한다. 얇은 핑크톤의 접시와 붉은 정소영의 식기장 제품.

The Korean word damjanggain (澹粧佳人) refers to a beautiful woman wearing fine and humble make-up. Another Korean word, hwayongwolmo (花容月貌), refers to the flower-like beautiful face of a woman. Since the olden times, every woman has dreamed of having 'a face as beautiful as the Prunusmume flower or peach blossom of spring, with natural make-up,' because beauty is not created by heavy make-up but is the attribute of 'women who look like flower blossoms with their bare faces.'

Most women have peachy cheeks and defined facial contours in their teenage years and twenties, but the flow of time leaves marks on their faces and takes away the glow therefrom. If your face looks larger, devoid of resilience, and dull or lifeless, you must find a way to have younger and more radiant skin.

For the fastest results, you must look for a method of skin expression. Sulwhasoo's Evenfair Perfecting Cream Compact is a make-up item that fills your skin with smooth and comfortable radiance. Its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it feels as comfortable and light as your own skin. The light and supple Creamy Melting Complex without heavy wax allows soft and thin skin expression. There is a screen between the puff and the foundation, and the foundation particles filtered by the screen adhere to your skin for natural and fair make-up. Its second characteristic is simplicity. Evenfair Perfecting Cream Compact, a functional UV protection item in the form of a compact, combines the functions of a foundation and a compact.



여민마스크는 얼굴 동안존의 피부 밀도를 촘촘히 해 피부의 어린 빛, 결, 선을 찾아주는 고밀착 마스크. 영실 발효액을 사용해 14일 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탄생되는 한방 발효 마스크다.

향으로 하루 종일 평온한 상태를 느낄 수 있다. 피부 톤에 따라 총 3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은은하게 생기는 도는 복사꽃의 온화한 빛을 표현할 수 있다.

복사꽃처럼 해사한 피부를 얻고 싶다면 피부 표현도 중요하지만, 본 피부가 어린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30대 중반을 넘기며 시작되는 피부의 노화 현상이 짙어지기 전에 올바른 안티에이징 제품이 필요한 것이다. 여민마스크는 피부 밀도를 촘촘하게 해 주는 고밀착 한방 마스크로 이마부터 턱, 광대뼈 라인에 이르는 '동안존'을 집중 케어할 수 있다. 총 14일에 걸쳐 예부터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영실(절레의 열매) 발효액을 제조하고, 미생물을 배양하고 발효시킨 시트를 마스크 모양으로 재단하여 영실과 홍삼사포닌, 안색을 맑게 하는 옥죽 등의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를 투입하는 단계를 밟아 정성스럽게 완성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영실 발효 바이오 셀룰로오즈 시트는 치밀한 망상 구조를 갖고 있어 부드럽고 피부를 감싸 안듯이 착 달라붙는 밀착성을 느낄 수 있다. 사용 즉시 피부가 은은하게 빛나고 쫀쫀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촉촉하면서 빛나는 안색, 탱탱한 탄력감과 더불어 한결 촘촘해진 피부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 봄에는 채담 퍼펙팅케이크파운데이션과 여민마스크를 통해 곱게 피어난 꽃처럼 해사한 피부 표현, 빛과 결 그리고 선이 살아 있는 어린 피부로 거듭나 보자. 담장가인(澹粧佳人), 화용월모(花容月貌) 소리를 듣게 될 날을 기대하며.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점(02-541-6480)

It allows natural yet flawless make-up by itself. Evenfair Perfecting Cream Compact adds the scent of Prunus mume to leave your skin comfortable all day. You can choose the one among the three tones that is best for your skin. All the tones express the moderate radiance of peach blossoms, with subtle vitality.

If you want to have a skin tone as radiant as peach blossoms, you need to revive the youthful vitality of your skin. You need the right anti-aging products before the signs of aging that we begin to see as we age past our mid-30s aggravate. Innerise Complete Mask is the Korean traditional herbal mask that densifies the skin and provides intensive care for the forehead, chin, and cheekbones. Wild rose fruits are fermented for 14 days, and the fermented sheet is formed into the shape of a face mask and is carefully filled with the serum of wild rose, red ginseng saponin and Polygonatum roots for a brighter complexion. The fermented wild rose bio cellulose sheet has the structure of a dense mesh so it would feel soft, and to enhance its skin affinity. It instantly but subtly enhances the radiance and firmness of your skin and will leave your skin suppler, brighter, firmer, and denser.

This spring, you're invited to try Evenfair Perfecting Cream Compact and Innerise Complete Mask to revive your youthful skin and to make it as radiant as a beautiful blossom, with a younger-looking glow, a fine texture, and beautiful contours, so you would be said to be a damjanggain(澹粧佳人) and to have a hwayongwolmo(花容月貌).

옛 여성들에게 쇼핑 품목이 아닌 노동의 대상이었던 '우리 옷'

가회동의 '한씨 한옥'에서 일본의 설치미술가 다쓰오 미야지와와 함께 한복과 한옥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 만큼 한복 알리기에 열정을 쏟아 온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 그는 우리 옷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평창동 자택을 찾아 한복은 한국 여성들에게 어떤 가치였고, 어떤 대상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보았다.



1 소문난 컬렉터답게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자택은 동서양 앤티크의 복잡한 요소가 멋지게 어우러졌다. 컬렉팅을 시작한 초기에는 사들이고 발견하는 재미가 컸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물건이 나와 함께하면 존재한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이제는 '시간을 샀다는 생각이 든다. 2 조각보를 연상시키는 그림 앞에 앉은 김영석 씨. 옛 여인들이 버려지는 자투리 천의 쓰임새를 찾아 조각보로 부활시켰듯, 김영석 씨 역시 잊혀져 가는 것들의 쓰임새를 새로 찾아 재탄생시키고 있다.





1



2



3



4

1876년 정식으로 항구를 열었으니 한국의 근대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 완충기를 고려하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연 지 불과 100년이 지난 셈이지만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식탁은 중국산 식재료로 채워졌고, 아이들은 삶은 감자 대신 햄버거로 끼니를 대신한다. 또 사람들은 초가집이 아닌 고층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한다. 또 하나 눈에 띄게 변한 건 의복이 아닐까. 100년 전 그들이 오늘, 강남대로를 걷는 여인들의 옷차림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의 옷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선되었는지, 그들에게 옷은 어떤 가치를 지닌 대상이었는지 말이다. 우리에게 100년 전 일상복이었던 한복은 이제 장롱 속에 갇힌 '좀약 품은 옷'이 되고 말았다. 설이나 추석에 입는 예복이던 시절도 지났는지, 명절날 거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 한복의 세계화 혹은 한류를 외치지만 정작 주인인 우리는 고개를 외로 들고 눈길조차 주려 하지 않는다. 이렇다간 한복이 박물관 소장용으로 용도 변경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과정을 겪은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한복에 대한 홀대는 지나치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복의 가치를 알리는데 열심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에게 들은 얘기를 전하기 전에, 우리의 '옛 일상복'인 한복에 대한 상식부터 짚고 넘어가자.

옷은 기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당연히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옷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형태를 지녀야 하는 물건이었다. 소재도 두께도 달라야 한 해를 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청동기 시대 유물에 이미 바지와 저고리가 등장한다니, 우리 한복의 '기본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셈이다. 옷은 성별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했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TV에서 방영되는 사극을 보자. 등장인물들의 신분이나 직업은 그들이 입은 옷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 "귀족 여인의 옷 한 벌을 짓기 위해 7필의 옷감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옷은 여염집 부녀자들도 입을 수 없었다. 옷은 일종의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한복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든 생각 하나는 한복은 어느 시대의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옷은 유행에 따라 변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만 해도, 유교적 규제가 엄격해 극도의 소박함을 추구했던 전기와 많은 여인들이 기녀들의 자유로운 복식을 따라했던 후기가 크게 다르고, 일제 강점기에도 개량의 단계를 거쳤으니 말이다. 김영석 디자이너에게 던진 첫 질문이 어느 시기의 옷을 한복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었다.

1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평창동 자택 서재. 한복뿐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에 '차유'의 바늘을 대고 있는 그의 상상력은 이곳에서 출발한다. 2 어릴적부터 '물건'을 발견하고 물건에 담긴 시간과 스토리를 모아 온 그는 컬렉터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의 관심으로 한 공간에 모인 물건들이 수군거리고 있다. 3 그는 초등학교 때 불상을 사서 머리맡에 두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일까? 그의 마당에는 석탑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4 상자에 모아 둔 작은 주머니들에는 어떤 소원을 담아 두었을까?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주머니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먼저 우리 역사는 단일 민족의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백의민족이란 명칭에서 흰옷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사실 과장된 감이 있죠. 현실적으로 옷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던 민초들에게 염료는 구입하기 벅찬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염료가 있다 해도 염색은 복잡한 작업이었고요. 그러니 흰색에 대한 기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염색이 안 된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사람은 자신의 피부를 바꿀 수 없기에 옷을 통해 또 다른 나를 구현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의 그런 창의적 속성이 옷을 통해 패션이란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복이 어느 시대의 산물이나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특정 시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답을 드릴게요.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한 이래 옷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화해 온 생명체입니다. 물론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니, 애당초 어느 시대의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한국적인 색상을 찾겠다는 따위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한국의 전통색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서구의 색상을 한복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진화하는 한복을 위해 매일 옷을 짓습니다. 제 할머니가 외출을 할 때마다 동정을 달고 손질하셨듯이 말이죠.”



1 방석을 사서 수선하는 즐거움으로 침선의 세계에 빠졌다는 김영석 디자이너의 소파에는 방석이 즐비하다. 2 그의 자택에는 수족관 속 물고기와 사랑스러운 반려견 그리고 수반에 담긴 작은 식물까지 생명이 가득하다. 3 디자이너 김영석 작품은 고전적 선은 살리되, 과감한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4 구한말 군복 때문일까? 김영석 씨 팔에 그려진 4개의 선이 완장처럼 보인다.

그의 얘기처럼 옛 여성들은 옷을 만질 줄 알았다. 아니 지을 줄 알았다. 철따라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남이 만든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길쌈으로 옷감을 생산하고, 치수를 재고 디자인을 해서 식구들에게 지어 입혔다. 여기에 수선의 책임까지도 여성의 몫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영석 디자이너는 옛 여성의 삶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삼십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한복 디자이너의 길을 택한 독특한 이력의 그는 '트랜스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진로 변경의 배경이었다고 한다. 남다른 미적 감각을 지녔던 엉뚱한 소년 김영석의 꿈은 명료했다. 평소 애정이 있던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며 고아원을 운영하다, 은퇴 후 목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삶을 꿈꿨었다. 이후 누구나 경험하듯 소년의 꿈은 수정되어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 그러다 바느질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바느질이나 가위질은 여성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국에서 뜨개질은 남성의 영역이었어요. 우리의 경우도 평안남도 안주 지방에서는 고품질의 명주와 수실로 자수 작품이 생산됐는데, 숙련된 남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보긴 어렵죠.”

여성들이 볼 수 없는 미적 세계를 남성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평소 즐기던 수선의 즐거움을 침선을 통해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치유의 미학’이란 표현을 썼다. 오래된 방식 하나를 구해 원단을 덧대 바느질을 하고 나면, 그 물건은 다시

숨을 쉬게 되니,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해서 그는 한복 디자이너라는 본업 이외에도 치유의 대상을 찾아내 거침없이 고된 일을 자청한다.

가회동의 버려진 한옥에서 패션쇼를 한 것도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닌 죽어 있던 한옥에 생명을 부여하고자 한 치유가 목적이었다. 이런 관심은 상처를 입은 ‘독도’나 ‘송례문’으로까지 옮겨 다닌다. 국민들이 모은 조각 천을 이어 거대한 조각보로 만들어 화마로 죽은 송례문을 통째로 덮어 부활시켜 보겠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는 한복 디자이너가 아닌 ‘문화치유 운동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다시 한복 이야기로 돌아가자. 김영석 디자이너는 ‘옷의 진화’라는 속성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품위 혹은 최소한의 격식마저 저버린 한복의 저질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일본이 ‘정장 기모노’와 ‘간편복 유카타’로 기능을 나눠 품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한복은 ‘개량’이라는 이름 아래 품격이 떨어지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양이다. 그의 한복은 우리 고유의 고운 선이란 전통은 따르되, 색상과 배치는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모던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한복 디자이너로서뿐 아니라 컬렉터로도 명성이 자자한 그는 물건을 사들여 숨을 불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가 일하는 모습은 마치 낡은 옷이 호롱불 너머 어머니의 침침한 눈길이 닿으면 온전해지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한다.

옷은 집과 밥처럼 ‘깃다’라는 동사를 쓴다. 의식주는 그렇게 하나의 행위란 뜻을 담고 있다. 일상에서 실종된 한복을 찾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집 안에서만이라도 한복 입기 같은 것 말이다. S

글 최태원 사진 전택수



봄은 한 송이 붉은 동백으로 선연하게,
하얗게 가지를 뒤덮는 매화로 소담하게 찾아온다.
혹자는 뒷산에 놀러 온 새들의 경쾌한 지저귀미 꽃보다 먼저
찾아온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봄의 만개한 아름다움을 귀히 기리며
화폭을 채웠다. 담백한 채색과 힘 있게 이어 내려간 선을 따라
찾아온 봄의 물길을 열고 꽃을 피우고, 새 소리를 담았다.
여기 화폭에 봄이 먼저 들어와 곱게 앉았다.



봄은 한 송이 붉은 동백으로 선연하게,
하얗게 가지를 뒤덮는 매화로 소담하게 찾아온다.
혹자는 뒷산에 놀러 온 새들의 경쾌한 지저귀미 꽃보다 먼저
찾아온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봄의 만개한 아름다움을 귀히 기리며
화폭을 채웠다. 담백한 채색과 힘 있게 이어 내려간 선을 따라
찾아온 봄의 물길을 열고 꽃을 피우고, 새 소리를 담았다.
여기 화폭에 봄이 먼저 들어와 곱게 앉았다.

봄이 예 들어왔다



봄이 예들어왔다



옛 선비들의 자연주의

언어의 범람은 현실의 결핍과 부재를 반영한다. '자연주의'라는 말이 온갖 광고에 등장하는 건 오늘날 우리네 삶이 그만큼 자연과 동떨어져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그럴수록 선언해지는 건 삶 자체가 자연과 하나로 맞닿아 있던 옛 선비들의 모습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닮고자 했던 그들에겐 자연주의라는 말이 굳이 필요치 않았다. 일상이 담긴 집부터가 창천(蒼天)과 청산(靑山)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한 귀퉁이였던 까닭이다.



자연을 닮은, 자연을 담은 집

한옥은 지붕의 선부터 자연을 빼닮았다. 옛집이나 마을의 사진들을 보면 초가지붕이건 기와지붕이건 뒷산의 능선 모양을 똑같이 닮았다는 게 쉬 확인된다. 집들은 또한 자연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서, 쓰리나무 울 틈새나 낮은 담장 너머로 바람이 제집처럼 드나든다. 밖에서 바라본 지붕의 선은 그 모양 그대로 뒷산으로 내달리고, 대청에서 내다본 마당은 눈길 가로막는 법 없이 곧장 하늘로 이어진다.

서양의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는 이의 시선도 당연히 건물 바깥에 머문다. 이와 달리 한옥은 대청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담고 있다(이상현, <즐거운 한옥읽기 즐거운 한옥짓기>).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완벽함보다는 집에서 자연으로의 제한 없는 확장과 일치를 추구했다는 뜻이다.

이를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송순(1493~1583)의 시조다. 자연을 닮은 집에서 자연을 담은 삶을 살고자 했던 선비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멋들어지게 표현한 노래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靑風) 한 칸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원림(園林) 담장 밑으로 흐르는 물길

정원 문화가 발달한 것은 한중일(韓中日)이 모두 같지만 그 속에 깃든 정신은 확연하게 달랐다. 중국의 정원은 큰 산을 쌓고 우람한 바위를 두르는 식의 인위적 풍경이 주를 이룬다. 일본의 정원은 연못 속의 작은 섬들이나 안개를 대신하는 연기 같은 섬세한 인공물들이 곳곳에 배

치되어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옛 정원은 어디까지나 자연이 주(主)요, 인공적 요소들은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성리학이나 도가(道家), 풍수 등의 흔적도 있지만, 원림을 만든 선비들이 추구했던 첫 번째 원칙은 예외 없이 '자연과의 합일'이었다. 바람길을 막지 않고 물길을 열어 주는 것, 사방이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정원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옛 산수 정원들을 '원림(園林)'이라 부르기도 한다.

담양 소쇄원의 오곡문(五曲門)은 원림에 깃든 선비들의 자연관을 또렷하게 보여 준다. 흐르는 계류(溪流)를 막지 않고 개울 위에 쌓은 돌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 머물고자 했던 선비들의 겸손함은 담장 밑에서 다섯 굽이로 흐르는 물길에 실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문인화(文人畵), 선비 정신으로 걸러낸 또 다른 자연

자연을 닮고자 했던 선비들의 마음은 서화(書畵)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소나무와 대나무와 매화, 이른바 세한삼우(歲寒三友)는 오랫동안 선비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인조 때의 명신 이식(1584~1647)은 <송죽문답(松竹問答)>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술이 대에게 말하길/ 눈보라 몰아쳐 산골 가득해도/ 난 강직하게 머리 들고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는 않는다오// 대가 술에게 답하길/ 고고할수록 부러지기 쉬운 법/ 난 청춘의 푸르름 고이 지킬 따름/ 머리 숙여 눈보라에 몸을 맡긴다네 (松問竹 風雪滿山谷 吾能守強項 可折不可曲 竹答松 高高易摧折 但守青春色 低頭任風雪).”

선비들은 그림 속에도 자연관을 오롯이 담아 냈다. 꽃 한 송이를 그리더라도 변잡하게 그리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낸 채 최소한의 형상만을 남겼던 것이다. 16세기에 그려진 김시의 <대나무와 까치>, 19세기 화가 송수면의 <묵매도(墨梅圖)> 등은 선비 정신에 의해 걸러진 또 다른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많은 것들을 생략함으로써 더욱 자연의 실체에 가까워진 나무와 꽃! 그것은 선비들의 눈에 비친 자연의 정수이며, 그들의 담백하고 겸손한 자연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값진 교본이기도 하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1,2,3,4 조선 후기의 화가 영은군 이함의 화조초충화첩(花鳥草蟲畵帖) 중 몇 대목. 화조초충화첩에는 구도나 필묵법이 대담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화조도 9점과 초충도 2점이 실려 있다. 5 16세기의 선비 화가 김시의 <대나무와 까치>. 김시는 서화에 능해 산수, 영모, 매화와 대나무를 잘 그렸다. 힘 있는 필치로 그려진 대나무와 까치의 구도가 깔끔하다. 6 선비 화가 송수면의 매화도. 종축으로 긴 화목의 중심에 꽃꽂이 일어난 노매의 굽직한 줄기 사이로 하얀 매화꽃이 소담하게 피었다. 모두 순천대학교 박물관 소장.

新그림풍경 봄의 마음, 그림에 담다

옛 사람들은 집 곳곳에 그림을 걸었다. 신혼방에는 모란병풍, 사랑방에는 책가도, 안방에는 화조화를 두었다. 작은 쪽문에도 그림 몇 점 걸어 소박한 소망을 담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겸허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 봄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을 통해 선조의 미감을 살핀다.



화려한 계절이 피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이 피고 지는 모습을 담기 좋아했던 선조들은 꽃과 풀, 새를 주제로 그린 화조화(花鳥畵)를 많이 남겼다. 조선 초기에는 채색을 한 작품이 많고, 중기로 접어들며 먹을 이용한 대담한 필치의 화조화가 많이 그려졌다. 소개된 그림은 화조도 6폭 병풍 중 3점으로 비스듬한 암석과 가지 사이로 뻗은 매화와 동백 등이 깃털이 아름다운 새와 어우러져 화사한 봄의 정취가 담뿍 담겨 있다. 조선 후기 작품으로 소장처는 국립민속박물관이다.

그림에 어우러진 도자새는 김익영의 작품으로 유일요.

꽃가운데 으뜸, 모란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은 봄이 되면 사대부가
는 물론이고 민가 마당 한 귀퉁이에도 피어났
다. 꽃잎이 크고 화사해서 고려 시대에는 '꽃
의 왕', '꽃 중의 천자로 불렸다. 정선, 조영석과
함께 '사인삼재(士人三齋)'라 불렸던 조선의 화
가 심사정은 화훼와 조충, 영모, 산수화에 능했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심사정의 꽃과
새는 목련과 모란 작은 새, 암석을 발목 기법을
사용해 그렸다. 만개한 모란 봉오리가 봄의 정
취를 전하는 이 그림은 겨울에 그려졌다. 따스
한 봄을 기다리는 화가의 마음이 전해진다.



책거리 병풍, 선비의 방에 들어오다

책거리는 학문에 정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책을 좋아했던 조선 선비들의 취향이 남긴 산물
이다. 책거리는 선비들이 철에 따라 서안 가까
이에 두었던 물건으로 구성되는데, 봄이면 사랑
방 귀한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는 책거리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 눈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피
어 선비의 고고함을 상징하는 매화를 그려 만물
이 소생하는 자연의 정취와 선비 정신을 두루 담
았다. 특히 정조는 책거리를 유난히 좋아했는
데, 항상 책을 곁에 두고 학문을 게을리 하지 말
라는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기도 8곡 병풍은 입체
적인 책갑과 보병에 꽂은 백매화를 통해 공간감
을 느낄 수 있다.

그림 위에 올려진 석류 도자 오브제는 우일요.





꽃과 나비, 봄을 부른다

꽃과 나비를 그린 그림을 화점도(花蝶圖)라 하는데, 꽃은 여자, 나비는 남자라 하여 예부터 부부 화목을 기원하는 뜻으로 많이 그렸다. 19세기에 활동한 남계우는 조선을 통틀어 나비 그림을 가장 잘 그린 사람으로 꼽혀 '남나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남계우가 그린 해당화와 나비에는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나비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실제로 남계우는 나비를 자세히 관찰하며 기느다란 붓을 이용해 사실적인 묘사에 힘썼다고 한다.

수선, 동백과 짝을 짓다

이른 봄에 피는 수선화는 '물가의 신선'이라 불릴 정도로 그 함초롬한 자태가 사랑을 받아 책가도 등에도 수선화를 뿌리째 그린 것이 많다. 조선 후기 수선화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그림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1800년 북경을 다녀온 선비가 수선화 한 뿌리를 다산 정약용에게 선물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몇 달을 걸리는 여행길에 애지중지 챙겼을 정도니 수선화가 얼마나 귀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조선의 화가 신명현이 곳곳하게 피어난 수선화를 동백과 짝지어 그린 수선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우일요(02-763-2562)





雪花秀

불멸의 꽃이 피어나는 꽃담들

눈이 녹기 전에 그곳엔 매화가 피고, 가을바람 불기 전에 그곳엔 국화가 핀다. 그곳의 대나무는 천 년을 거뜬히 살고, 그곳의 연꽃은 한밤중에도 만개해 있다. 밤낮도 없고 계절도 없이 사철 향기로운 화원. 그곳의 이름은 꽃담이다.

꽃담. 상서로운 글자나 꽃, 동물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은 담장이나 굴뚝. 다른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회면벽(繪面壁)이나 화문장(華文牆), 화담(花牆)이나 화초담(花草牆) 같은 한자어는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다.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아도, 그 담장은 오직 꽃담이라고 부를 때만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경복궁 자경전 8폭 꽃담의 아름다움을 새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삼라만상의 이치가 고스란히 담긴 듯한 그 신비로운 무늬들을, 불멸하는 것들을 망라해 둔 십장생 굴뚝의 정교함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가. 화려하되 아하지 않고 또렷하면서도 은근한 그 꽃담들은 위엄과 미(美)의 조화를 이뤄 낸 우리네 궁궐 꽃담의 최고봉이다.

경복궁 꽃담이 화려한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면 창덕궁과 덕수궁 꽃담들은 절제된 흑백의 기품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전자가 장미라면 후자는 안개꽃이라고나 할까. 빗물에 젖기라도 하면 그 고아(古雅)한 느낌이 한층 선연해진다. 낙선재 꽃담의 단순하면서도 오묘한 빙렬 무늬는 흡사 어느 노(老) 화가의 필생의 역작처럼 보인다.

불멸의 꽃들은 절집 담벼락에도 있다. 낙산사 원통보전을 에워싼 붉은 담장. 커커이 쌓인 황토와 암기와의 곳곳에 박힌 둥근 화강석은 단조로운 듯 오묘한 듯 벽면을 장식하며 궁궐과는 또 다른 사찰 꽃담의 미학을 절정으로 끌어올린다.

벚나무가 꽃비를 쏟아내는 4월엔 구례 쌍계사의 소박한 꽃담이 제격이다. 서책들을 비스듬히 쌓은 듯한 기와무늬며, 그 중간에 수키와들을 맞대어 꽃 한 송이 피워 낸 솜씨며, 전체적인 질감에서 풍기는 소박한 아름다움까지. 낙산사 꽃담이 기와에 눈 쌓인 겨울철 더욱 아름답다면, 쌍계사 꽃담은 기와에 꽃잎들 얹힌 봄날에 훨씬 아름답다.

어디 이곳들뿐이라. 선비의 기품이 서린 달성 도동서원의 검소한 꽃담과 안동 하회마을의 질박하면서도 구수한 꽃담, 땅끝으로 가는 길손의 고단함을 달래 줄 해남 대흥사의 꽃담까지, 이 땅의 산과 마을은 온통 꽃들로 가득하다. 같은 매화라도 궁궐과 절집의 빛깔이 다르고, 같은 연꽃이라도 서원과 마을의 향기가 다르다. 그리하여 우리의 땅은 발길 닿는 곳 어디나 거대하고 화려한 불멸의 꽃밭이다.

그러니 그대, 꽃소식이 늦어 아쉽거나 순식간에 지는 꽃들이 서운하다면 어디로든 꽃담이 있는 곳으로 훌쩍 떠나 보시길.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피부 깊이 힘이 살아나야 맑고 환한 빛이 차오릅니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맑고 환한 피부빛은 피부 힘이 결정하기에-
자정미백에센스는 피부 깊이 힘을 키워 자외선, 적외선, 노화가 만든 열에 의한 칙칙함을 스스로 밝히는 피부로 가꿀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지치지 않는 맑고 환한 피부빛과 만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자정미백에센스

Sulwhasoo



별서 정원에서 마음을 살피 뉘아내다

조선 시대 문학 유산의 큰 맥을 짚으라 하면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을 빼놓을 수 없다. 둘은 문학이라는 공통분모 외에 학문에 진력하며 삶을 연마했던 선비 정신도 닮아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각기 공들여 가꾸고 기거하던 '정원'이 있다. 이들에게 정원은 벼슬에 연연하지 말고 학문에 힘쓰고 내면을 살피라 채찍질해 주는 자연이라는 스승이 존재하는 고결한 가르침의 공간이었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다산의
마음이
붉은
동백으로
피다

다산초당에서 백련사로 가는 울울창창한 동백숲. 다산초당과 백련사는 산허리 길로 800여 미터, 지척에 있던 까닭인지 실학 사상의 대가였던 다산은 백련사의 고승 해장선사와 깊이 교류했다. 해장선사는 오랜 유배 생활에 메달랐을 다산을 보듬으며 벗을 자청했다. 그 마음 나누기 위해 수없이 오갔을 왕래의 길, 백련사 부도탑에 다산의 숨결이 붉은 동백으로 남아 수북하다.

The luxurious camellia forest from the Home of Dasan Jeong Yak-yong to Baengnyeonsa Temple. It is about 800m from the Home of Dasan to Baengnyeonsa Temple across the mountain trails. As it was so close, Dasan, the master of Practical Confucianism, closely interacted with Priest Haejang of Baengnyeonsa Temple. Priest Haejang comforted Dasan, who was exhausted from his long years of exile, and volunteered to be his friend. Dasan must have traveled this path countless times, and his spirit still lives in the pagoda of Baengnyeonsa Temple, in the form of the red camellia blossoms.





차탁에
앉아
책을
짓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600여 권의 책을 쓴 자리가 이 차탁 아닐까. 오죽 차를 즐겼으면 자신의 호를 다산(茶山)이라 했을까. 바위를 평평하게 갈아 솔방울을 태워 차를 끓이는 부뚜막으로 사용하던 이 자리에서 “우재(동백)가 다 지고서 찻잎이 기를 퍼니(落盡油茶始展茶) 우전차가 눈 속 꽃을 인하여 이었도다(雨前因繼雪中花)” 노래했을 다산의 모습이 선하다.

This must be the tea table where he completed about 600 books on Practical Confucianism, including <Mongminshimseo> and <Gyeongseyupyo>. He was such an ardent lover of tea that he named himself “Dasan (茶山).” You could imagine him singing “The tea leaves come out after the camellia blossoms have fallen (落盡油茶始展茶) and Ujeon Tea has succeeded the blossoms in the snow (雨前因繼雪中花)” on this rock, which had been flattened to burn pine cones for brewing tea.

인조 14년, 윤선도는 섬의 산세가 연꽃을 닮은 보길도에 터를 잡아 별서(別墅)를 짓고, 정원을 꾸민 뒤, 부용동 정원이라 불렀다. 동천석실은 사색과 독서의 자유를 위해 지은 작은 방으로 시아는 열어 두되, 쉬 범접할 수 없도록 산중턱에 지어 개방성과 폐쇄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냈다. 동리 입구의 세연정은 물길을 조성하여 연못들을 만든 정자로 세월이 빚어낸 바위로 미를 살렸다.

In the 1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Sun Do Yoon established a site in Bogildo Island, which resembles a lotus flower, to build a detached house and a garden, and named it "Buyong-dong Garden." Dongcheonseoksil was a small room for meditation and reading. It had an open view, but as it was located at a secluded corner of the mountain, it was not very accessible. It thus had an exquisite harmony of openness and closeness. Seyeonjeong, by the entrance to Dong-ri, was a pavilion by a pond showcasing the beauty of rocks shaped by time.





다산의 고독이 연못에 흐른다

다산초당의 연못 연지석가산. 다산은 초당 옆에 연못을 만들고 가운데 돌을 쌓아 섬 같은 산을 만들었다. 여기에 잉어를 키웠는데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잉어의 안부를 물을 만큼 귀히 여겼다. 해마다 봄이면 연못 위를 드리운 동백나무에서 피다 지친 동백이 떨어져 물에 어린다. 이 붉은 동백은 유배지에서 다시 봄이 왔음을, 그 더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을 다산의 고독이다.

Yeonjiseokgasan in the pond of the Home of Dasan. Dasan built a pond by the house and piled rocks in the middle to create an island. He raised carps here and valued them so much that he asked about them right after his release from exile. Every spring, the camellia blossoms fall onto the pond and float on it. These red blossoms represent the solitude of Dasan, who must have realized that spring had come and that time had flown during his exile.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발레리나 황혜민
무명천 같은 그녀

햇살이 나른하게 창가에 떨어지는 오후, 20여 년을 춤과 함께한 황혜민 발레리나가 반복되는 연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삶의 이야기가 나른한 오후 사이를 춤추듯 흥미롭게 넘실거렸다.



허리춤에 아름다운 꽃잎을 두르고 물결 위를 가볍게 거니는 듯한 발레리나의 모습은 초등학교 4학년 소녀에겐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무엇이었다. 그 신비로움에 빠져 토슈즈를 신었던 그녀는 이후 모나코 왕립발레학교와 미국 워싱턴의 키로프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2002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했다. 수석 무용수의 타이틀을 단 것은 1년 남짓이 지난,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였다.

생각하면 운도 따랐고, 시기도 좋았다. 문훈숙 단장이 현역 발레리나를 그만둔 시기가 2001년, 당시 유니버설발레단은 자신들을 대표할 주역을 키워야 했는데, 학생 시절부터 발레단의 유럽 투어에 참가하면서 솔리스트로 시작했던 그녀가 자연스럽게 꽃으로 낙점되었다. 현재 유니버설발레단과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는 각 7명, 남녀를 통틀어 모두 14명이다. 수석 무용수를 가리켜 '대한민국의 발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는 까닭이다.

고백하자면 '수석'이란 글자가 그녀에게 주어지기까지의 시간은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다. 이를 이상 쉬면 몸이 뻣뻣해지는 탓에 일주일에 하루를 빼고는 끊임없이 연습과 공연을 지속했던 나날이었다. 매일 춤을 춘다는 것은 유희과 고통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시간과 최대한의 노력을 바쳐야 하며 그 사이사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골짜기 삼켜야 한다. 황혜민 발레리나는 그러한 시간에 대해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솔직히 얘기한다.

"특히 어렸을 때는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당시에는 울면서 상처를 삼켜야 할 만큼 힘들었죠. 매일매일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이 그래요. 몸은 힘든데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하니까요. 다행인 건, 제가 천성적으로 무척 성실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해도 어느새 춤을 추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힘든 하루가 또 지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했죠."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 세계의 수면 아래는 생각보다 가혹하다.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발레에 환상을 갖고 춤을 추지만 발레단에 입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속에서 다시 수석 무용수가 되기란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움켜쥐는 것만양 아득한 이야기다.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지만 대다수는 군무를 추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발레리나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대단하죠. 물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토슈즈에 유리 조각을 넣을 정도는 아니지만요. (웃음) 심리적인 경쟁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꽤 강하거든요. 하지만 관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주인공에 집착하지는 않는답니다. 군무를 하면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발레리나도 있거든요. 군무를 통해 자신의 예술을 펼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실 똑같이 동작을 맞춰야 하는 군무가 더 어렵기도 하구요."

가냘픈 몸매의 그녀는 생각보다 정신력이 강하다. 지금도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스튜디오에 가서 연습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연습에 빠진 것은 두세 번에 불과하다. 스스로가 대견할 만큼 자신이 정한 규칙을 고집스럽게 지켜 낸 것. 경쟁이 심한 발레계에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외로운 발레리나에게, 가장 친한 동지는 토슈즈가 아닐까 싶다. 토슈즈 얘기가 나오자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것을 꺼내 보였다. 230cm의 아담한 분홍색 신발이다. 신발은 약간 때가 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곳곳에 실로 꿰맨 흔적이 보였다. 몸을 지탱하는 뭉툭한 발끝 부분과 발등, 그리고 끈과 고무줄이 이어지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꿰맨 흔적이 눈길을 끌었다.

"토슈즈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제품마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좋은 토슈즈는 오래 신지만 그렇지 않은 신발은 한 번 신고 버리기도 하죠. 처음 토슈즈를 받으면 리본이나 고무줄 같은 것들이 하나도 달려 있지 않아요. 그걸 발에 맞춰서 일일이 바느질해서 사용해야 한답니다."





꽤 긴 시간을 요구하는 토슈즈 작업(?)을 마친 완성품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남짓 그녀의 피부가 되어 연습실과 무대를 누빈다. 리본과 고무줄 등이 달려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발레리나마다 발 모양이 다른데다 끈을 매는 방법 등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서다. 하기가 발레리나에게 토슈즈는 제 2의 피부와 같은데 그 예민한 공합을 어설픈 기성품으로는 만족시키기 어려울 듯하다.

일반인들은 발레의 상징인 토슈즈에 환상을 품기 쉽다. 가령 발레리나가 자신의 예쁜 토슈즈를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등의 이야기들을 마구 상상한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뭇 달랐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녀가 꽤 오랫동안 간직했던 토슈즈라고는 동아무용콩쿠르에 나가서 신었던 것쯤 될까, 싶다(그것도 어머니가 일찌감치 폐기 처분했지만). 대부분은 신고 미련 없이 버린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관객에게 토슈즈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상징이지만 무용수에게는 생활의 일부다. 무대에 올려지는 공연은 몽환적이지만 그것을 만들어 내는 발레리나는 긴 시간을 연습으로 견뎌야 하는 것처럼, 토슈즈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현실의 도구다. 화가의 붓이나 조각가의 연장과 다를 것이 없다.

발레 이야기가 깊어갈 즈음, 우리의 이야기는 토슈즈가 가져다 준 '인연'으로 넘어갔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녀는 지난해 8월 유니버설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와 결혼했다. 수석 무용수 간의 결혼이었던 탓에 새삼 사람들의 눈길을 받기도 했다. 동반자는 엄재용 발레리노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한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엄재용 발레리노의 입문에서 시작된다. 발레 교수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엄재용 씨는 학창시절 아이스하키 같은 남성적인 스포츠를 선택하고 즐겼는데 어느 날 발레 비디오 한 편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런 것이 예술이구나.' 싶은 강한 충격과 끌림을 받은 뒤였다. 그 작품이 바로 <지젤>이다. 황혜민 발레리나가 자신의 몸처럼 편하게 연기한다는, 그래서 가장 좋아하기로 첫손가락에 꼽는 작품이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같고, 오랜 시간 연애를 해서 취향이 비슷해진 것도 같아요. 사실 10년간 연애를 했으니까 발레계에서는 공공연한 커플이었거든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거의 비슷했어요. '드디어' 하나 있는 거였죠. 결혼한 뒤의 달라진 점이에요?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서 연애할 때랑 똑같아요. 그냥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변화라면 변화랄까요. 아, 딱 한가지. 예전에는 쉬는 날이면 맛집에 가거나 영화관에 갔는데 지금은 집에서 충분히 자면서 에너지를 비축하죠. 몸을 쓰는 직업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웃음)

서로에게 길들여진 탓일까. 돌아보면 신혼여행에 가서도 둘은 신기하게도 다른 부부들이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미래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인지, 서로의 낯빛을 순간순간 읽어내는 발레 파트너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상대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가슴 깊게 깔려 있었다.

춤과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그녀는 끊임 없이 목을 돌리고 발끝을 당겼다 펴는 동작을 했다. 틈틈이 몸을 풀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스스로가 춤꾼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새삼 눈여겨보니 그녀의 몸은 참으로 아담하다. 키도 크지 않는데다 여자가 두 손으로 안아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얼굴의 생김새는 화려하지 않고 동양적이다. 인형 같은 발레리나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신 무명천 같은 느낌이다. 깨끗하고 소박하다. 생각해 보면 꾸준히 한길을 걸어온 예술가에게 이만한 색깔이 어디 있을까. 무수히 많은 작품을 자신의 옷처럼 자연스레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인 듯싶다. 그녀가 언뜻 지젤이기도 하고, 타티아나(오네긴)이기도 한 이유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린서) 사진 박재형 헤어 김민선(보보리스 02-549-0988) 메이크업 정우경(보보리스 02-549-0988)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주신 곳 이상봉(02-553-3380) 오브제, 엘리타하리(02-3444-1730) 케이트앤컬리(02-508-6033) 르샴(02-514-9006)



Richard Ginori 피렌체의 감성, 리차드 지노리

1735년 설립되어 피렌체 도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명품 자기 브랜드 리차드 지노리(Richard Ginori)는 전통과 고전미가 살아 있는 장식용 도자기는 물론이고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화려한 식기류를 내놓고 있다.



리차드 지노리(Richard Ginori)는 18세기 중엽 유러피안 포셀린의 존재가 미미하던 시절 동양에서 도자기를 수입하는 무역상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처음에는 자기를 수입해서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납품하다 1735년 이탈리아의 카를로 지노리(Carlo Ginori) 후작이 피렌체 인근의 휴양지인 도치아(Doccia)에 공장을 세워 정식으로 도자기 생산을 시작했다.

카를로 지노리는 18세기에 이미 중국 자기의 비밀인 자토(磁土)를 밝혀냈으며, 스텐슬(a stampino) 꽃무늬 장식이 들어간 접시를 가장 먼저 생산하는 등 앞선 기술을 자랑했다. 이것은 프랑스 세브르 및 리모주에서 생산된 자기보다 20년이나 앞선 것이다.

초반에는 주로 웅장한 저택을 장식하기 위한 크고 화려한 도자기에 주력하였으나 식탁 문화의 발달에 맞추어 차츰 실용적인 식기들을 만들게 되었다. 여러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위한 맞춤 식기도 생산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 많은 이탈리아의 도자기 공장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카를로 지노리는 나폴레옹의 부인이 단골이었던 덕분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1896년 밀라노의 리차드(Richard) 자기 공장에 합병되면서 '리차드 지노리' 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리차드 지노리는 클래식하면서 아르누보(Art Nouveau : 유럽 및 미국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유행한 건축 및 장식 예술의 한 양식. 나뭇잎, 꽃 등의 자연물을 본떠 복잡한 곡선을 사용한 것이 주요 특징) 스타일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리차드 지노리의 DNA라 불리는 350여 명의 장인과 작가가 일하고 있다.

코뿔소에서 압타에 이르는 다양한 동물의 실내장식에서부터 님프(물의 요정)와 교황, 로마 황제들의 흉상, 전통 방식의 자기와 현대적인 접시들까지 리차드 지노리의 커다랗고 넓은 장부에는 이 모든 것이 뽀뽀하게 적혀 있다. 전문 부서를 나눠 세밀하게 작업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식을 담당하는 장인들의 손은 종이처럼 얇은 반투명의 도기 꽃들을 탄생시키고,

1 발칸족의 꽃무늬를 변형시킨 포크웨어(Folkware)라인의 그릇. 2,3 채색 전의 도자의 모습. 4 스텐슬(a stampino) 모티프와 블루 프린트 라인인 제품.





1 카스포(Caspo) 라인의 컵에 담긴 장식 작업장의 붓들. 2 리차드 지노리만의 화사하고 화려한 색감. 3 모던한 디자인과 색감의 콜로나(Colonna) 라인 주전자와 컵 세트. 4 작은 꽃과 커다란 촛대로 이루어진 꾸아트로 스파지오니(Quattro Stagioni) 라인. 5 사탕 같은 색채가 가득한 그릇.

그 도기 꽃들은 향아리와 수프 그릇, 화분에 붙여진다. 깔끔한 흰색 타일이 깔린 작업대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 식기들도 볼 수 있다. 그중 일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제작되고 있다. 1923년부터 30년까지 리차드 지노리의 아트 디렉터였던 지오 폰티(Gio Ponti)가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얻어낸 독특한 컬러의 진귀한 자기들이다. 젊은 건축가이자 자기 제작자였던 지오 폰티는 이 도자기들에 그리스·로마 시대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서 영감을 얻어 형태를 세련되게 다듬고 장식을 변형시켜 아르데코 스타일의 자유를 불어넣었다. 한편에는 18세기 피에타상과 메디치가(家)의 향아리들이 구워지길 기다리면서 서서히 건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돈에 아키텍처라(Donne e Architettura)' 향아리 같은 대형 장식품을 오랜 단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리차드 지노리가 전통적인 도자기 장식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이라고 비웃는 이들도 있지만 지노리의 디자이너들은 이 작품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나의 손으로 오랜 유산을 만지고 느끼는 게 좋습니다. 지노리의 뿌리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죠?" 25년간 장식 작업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파브리 테실리오(Fabri Tersilio)의 말이다.

화려하고 높은 가격대의 제품이 주를 이루어 대중들이 만나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리차드 지노리 1735(Richard Ginori 1735)'란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서브 브랜드가 있기 때문. 이 제품은 유명 호텔 레스토랑과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소장 가치가 높은 식기류 생산으로의 변화를 이끈 사람은 지오바니 가리볼디(Giovanni Gariboldi)였다. 1954년에 아트 디렉터로 임명된 가리볼디는 모던한 도나텔라(Donatella), 아드리아나(Adriana), 울피아(Ulпия) 라인의 식기류와 함께, '콤파소 도로(Compasso d'Oro)' 상을 수상한 콜로나(Colonna) 식기 세트를 디자인했다.

그 후 우수한 컨설턴트 디자이너들이 뒤를 이었고 현재는 파올라 나보네(Paola Navone)가 리차드 지노리의 아트 디렉션을 맡고 있다. 파올라 나보네는 리차드 지노리의 대표 제품들을 꾸준히 부활시키면서 접시 아랫면에 균열과 클립을 넣은 브로큰(Broken) 라인, 봉봉로즈 컬러의 오리엔테 이탈리아노(Oriente Italiano) 라인, 터키 옥색의 캘리그래피(Calligraphy) 라인을 발표했다.

2010년 발표한 세손로제피오리라노(Sesonrosefioriranno) 라인에서는 1745년의 장식인 작은 아말피(Amalfi) 장미꽃 장식을 정교하게 살려냈다. 프로바 프리마(Prova Prima) 라인을 내놓기 전에는 정확한 색조를 찾아내기 위해 장식 미술가들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18세기에 지노리에 명성을 안겨 주었던 스텐슬(a stampino) 꽃무늬 모티프처럼, 파올라는 예술 정신이 충만한 독특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적은 예산, 큰 효과'에 승부를 걸고 있다. 역사를 만들어 낸 수준 높은 장인들의 노하우와 젊은 아트 디렉터의 혁신적인 디자인관은 '예술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리차드 지노리의 미래를 환히 밝혀 주고 있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찰리 도렐(JULIE DAUREL) 사진 니콜라스 밀레(NICOLAS MILLET)



물질에 혼을 불어넣는 작가 임충섭

작가 임충섭의 화업 40주년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전시장의 흰 벽과
바닥 여기저기에 걸리고 놓이고 흩어진 작품들은 그림과
조각, 일상 사물의 간극을 부단히 넘나들면서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줬다.



절제된 색과 빛, 한 가닥 한 가닥 촘촘히 걸어 놓
은 무명실은 마치 사물의 느티나무처럼 펼쳐져
전시장을 찾은 이들을 맞이했다. <타래 II>(2011)
와 <월인천차>(2012)가 마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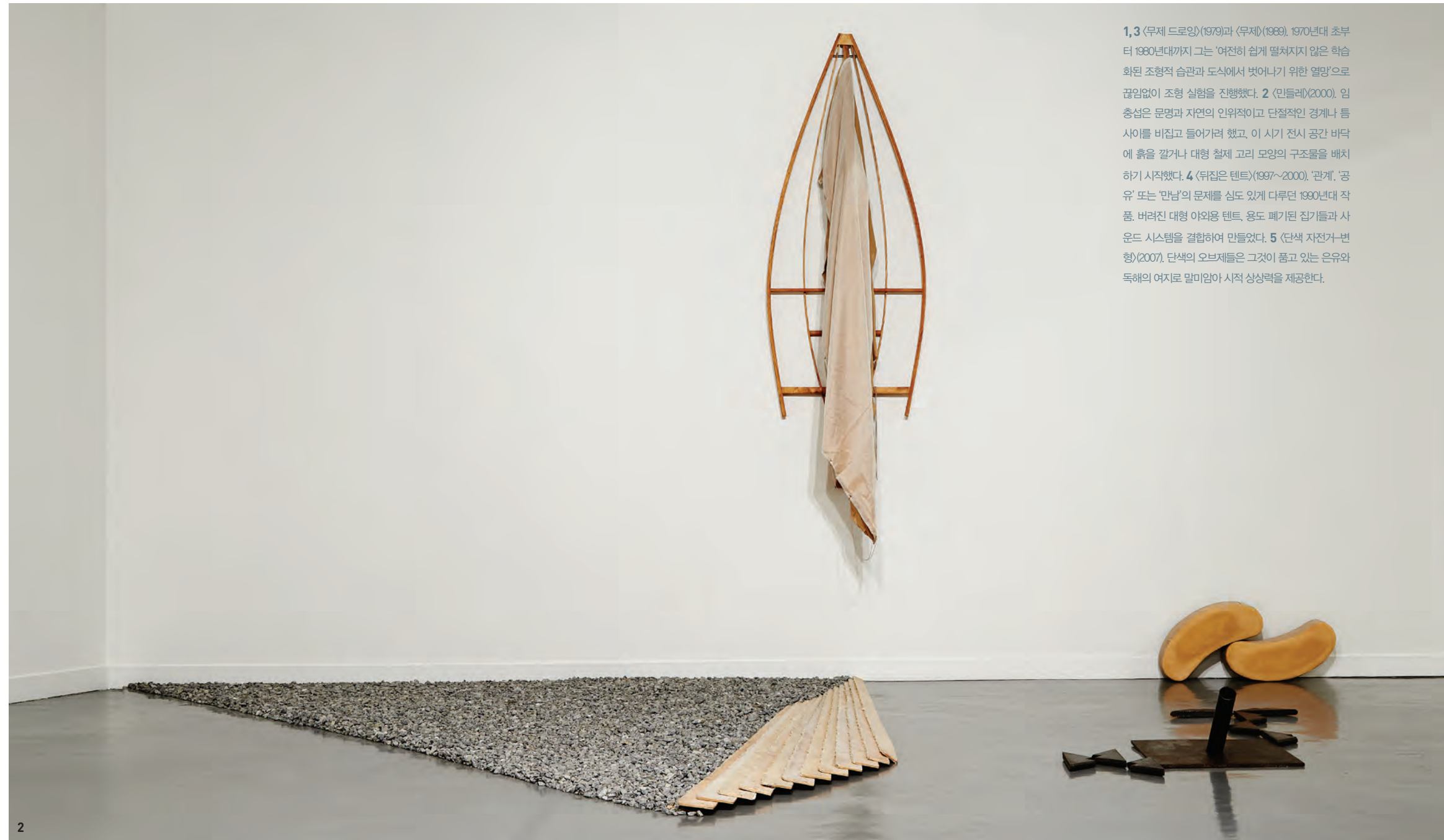


새삼 드는 생각이지만 작가란 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 혼을 불어넣어 그것을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키거나 환생시키는 이들이다. 이른바 마술가요 연금술사다. 내 기억에 임충섭은 한국 작가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연금술사에 해당한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물질을 온전히 자신의 감각으로 매만져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그 손놀림이 단순히 화가나 조각가의 숙련된 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작가의 특징이다. 그의 수공, 손의 감각은 마치 옛사람들이 삶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체득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 전수되어 내려온 유전적인 솜씨, 다시 말해 일상에 필요한 연장을 스스로 만들고 다듬어 온 지혜로운 솜씨다. 농경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온 무수한 연장들의 편린을 그의 작품에서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충섭의 작품에서 그가 유년을 보낸 충청도 농가 여인들의 길쌈 도구와 농경에 필요한 연장들, 일상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의 흔적을 실감나게 만날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후 197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가 평생 하고 있는 작업이 실은 그의 유년 시절의 추억과 경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경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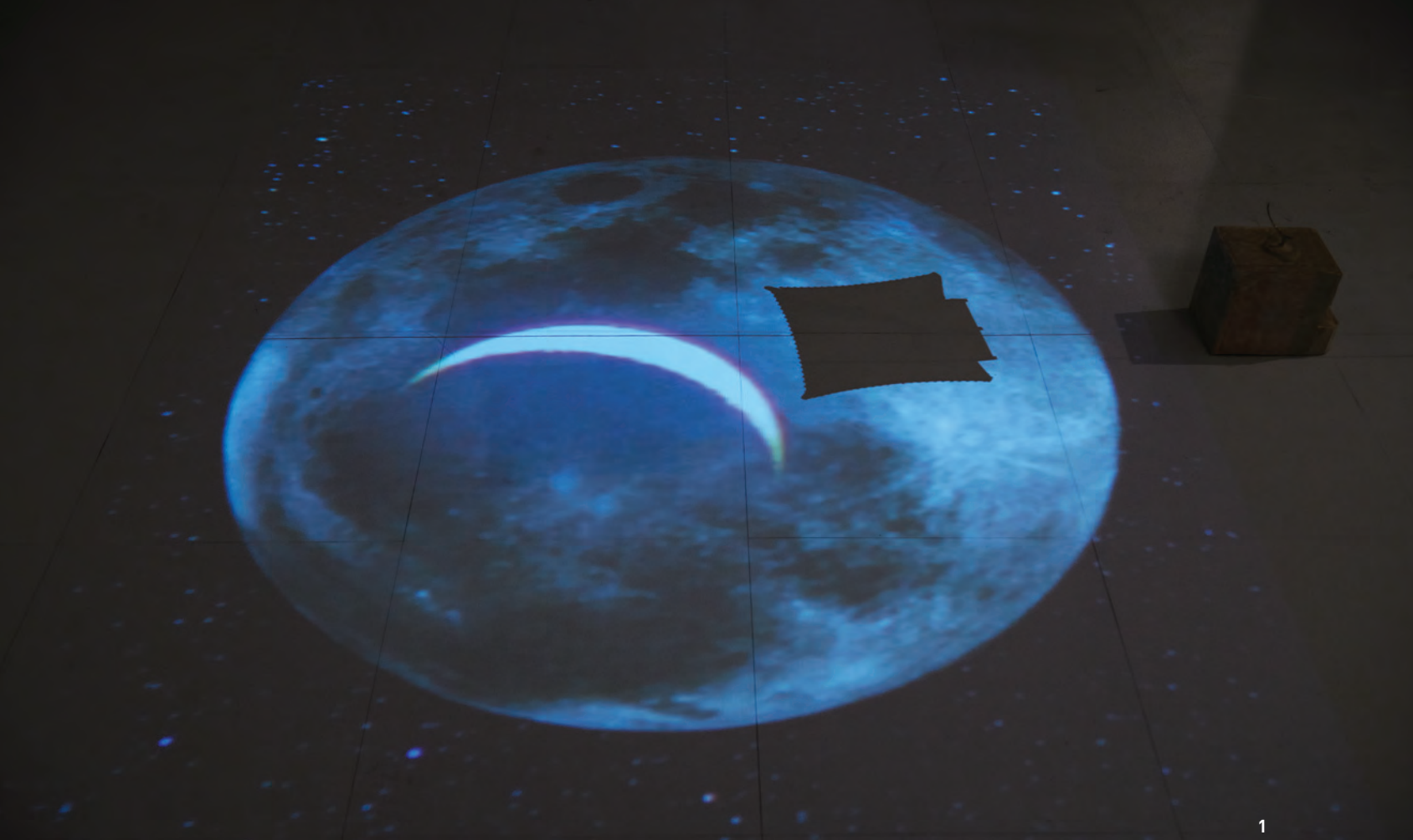
이처럼 한 개인의 역사는 결국 그의 유년의 역사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토록 중요하며 그 시절에 보고 느끼고 맛보았던 모든 것이 평생의 감각을 좌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좋은 예술가가 되는 것은 잘 보낸 유년 시절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임충섭의 작업이 유년 시절의 추억을 즉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곧바로 농기구나 고건축, 목가구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거기에서 연유하지만 실물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해 놓았다. 작품의 이면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았고 경험했고 간직했던 그 기물들에 대한 향수와 영향이 매혹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가 예술가다. 물질에 영을, 혼을 불어넣는 일 말이다.

임충섭은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이나 실, 합성수지나 천, 흙에 오랜 시간 매만지고 다른 것들을 혼합시켜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그것들을 전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그러나 기존 전시와는 사뭇 다른 느낌, 감각을 요구한다. 그것은 한눈에 힐끗 보고 지나치기 어렵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물질과 독대해야 하고 그 물질에 말을 건네고 더듬어 보고 애무해야 한다. 물론 전시장에서 작품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그 물질/작품을 편애해야 한다. 난해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작가의 의도로 들어가는 통로는 이미 작품의 제목에서 보여진다. 그 제목들은 하나같이 시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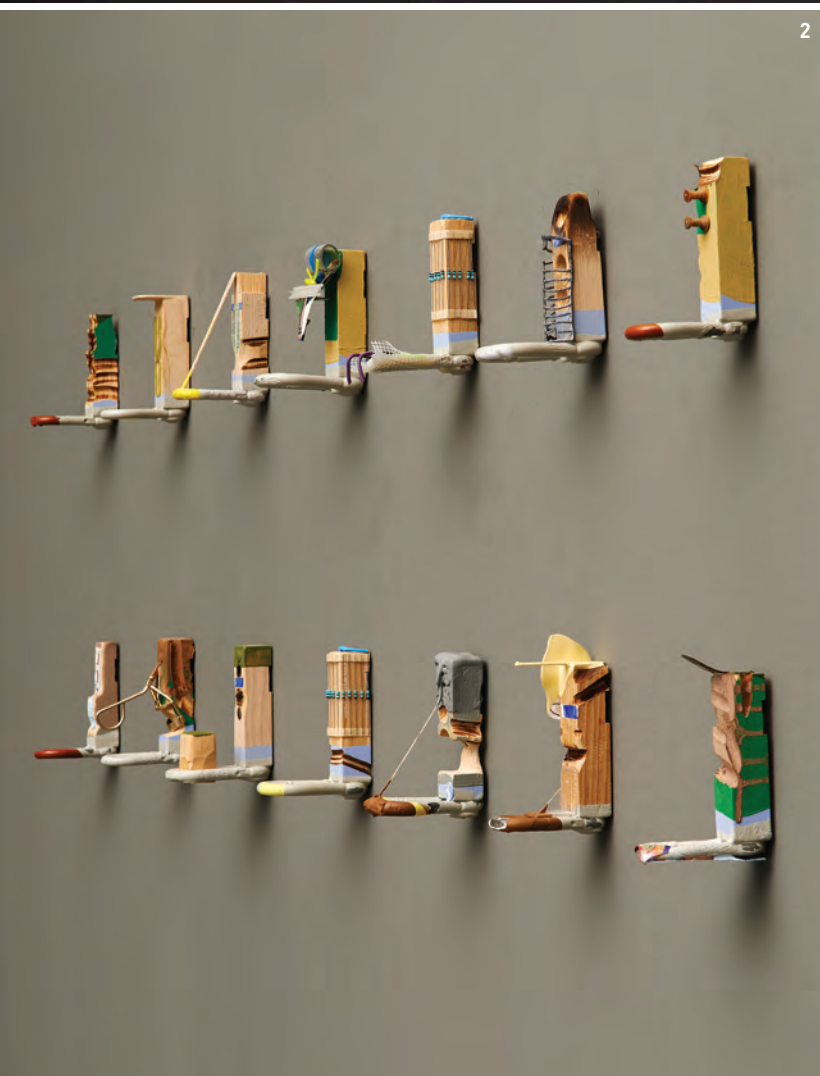


1,3 <무제 드로잉>(1979)과 <무제>(1989).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그는 '여전히 쉽게 떨쳐지지 않는 학습화된 조형적 습관과 도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망'으로 끊임없이 조형 실험을 진행했다. 2 <민들레>(2000). 임충섭은 문명과 자연의 인위적이고 단절적인 경계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고, 이 시기 전시 공간 바닥에 흙을 깔거나 대형 철제 고리 모양의 구조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4 <뒤집은 텐트>(1997~2000). '관계', '공유' 또는 '만남'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던 1990년대 작품. 버려진 대형 야외용 텐트, 용도 폐기된 집기들과 사운드 시스템을 결합하여 만들었다. 5 <단색 자전거-변형>(2007). 단색의 오브제들은 그것이 품고 있는 은유와 독해의 여지로 말미암아 시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1



2



3

도 같다. 〈느리게 걷기〉, 〈도자기〉, 〈빛-회전〉, 〈채식주의자〉, 〈타래〉, 〈월인천지〉, 〈딱정벌레〉 등은 그 자체로 이미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알쏭달쏭한 제목에 의지해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의 형태와 질감, 색상 등을 감상하다 보면 문득 그로부터 연상되는 형상을 만나고 그 형상이 끌고 들어오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는 사소한 일상의 사물을 이용한 작품들을 통해 문명의 그늘 아래서 잊히거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셈이다. 자연과 고향, 유년 시절 등을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이 오브제들은 아마도 작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독거리던 추억의 매개체이고, 상실되고 사라져 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의 감정에서 풀려나온 것 같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진천 시골의 삶 주변에 세련되지도 않고 특별히 주목받지도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던 사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의 시간 위로 호명되어 '기억의 화석'이 된 것이다. 그 화석은 단지 지난날의 시간과 추억을 응고하고 단련 형태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시절을 현재의 시간 위로 방사하고 환하게 밝혀 주면서 지속해서 살아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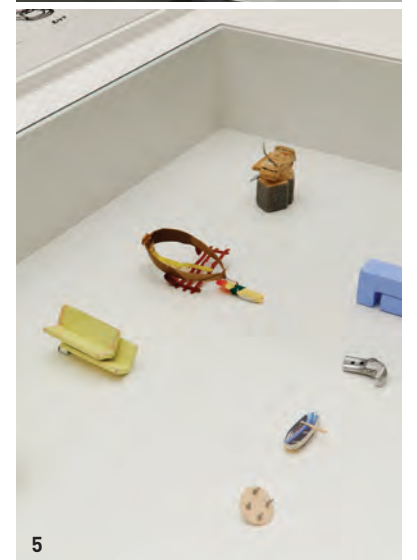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지난 시간의 기억을 갉아먹으며 살아간다. 그러니 추억이 없는 이들은 현재의 삶도 없는 셈이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서 생활하는 임춘섭의 경우는 지난 시간의 추억이 더욱 간절했을 것 같다. 임춘섭은 그 기억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고 다듬고 매만지면서 문득 물질화했다. 그리고 그것이 작품이 되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몸과 정서적인 배경에서 비롯되는 기억의 범주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점이 임춘섭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이다. 다시 말해 그의 설치 작품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개별 요소들은 그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침전물이란 얘기다. 그가 매만져 놓은 물질들은 저마다 투명하고 환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하얀색으로 마감된 전시장 전체에 임춘섭의 작품들은 또 다른 흰빛을 방사한다. 그것은 흡사 창호문으로 스며들어 와 좁은 방 안을 환하게 밝혀 주던 햇살과도 같다. 그런가 하면 하얀 밤사발의 표면에서 뿜어 나오는 빛과도 같다. 또는 하얀 한복과 도자기의 피부에서 번져 나오는 빛과도 닮았다. 그 빛은 한국인의 빛이고 정서이자 기억과 심상의 빛이고 원초적인 색채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대해 "옛날 그가 살던 고향 동네와 이웃의 공간들을 문살과 창호가 그려내는 빛의 미학으로 기억했다"고들 말한다. 그러니 이 작가의 다음과 같은 육성을 들으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매미 허물처럼 얇은 파도가 소실점을 향해, 고리고리 물고 간다. 그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의 조각들이 나의 앞과 뒤를 따르고, 그 빛들은 살얼음 같은 바다 추위를 잊게 하여, 나를 따사로움으로 이끌고, 따사로움은 우리의 창호문으로 데려다 준다. 우리 조상들은 그 문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선행위'를 했다고 본다. 옛날, 나의 이웃 동네, 가랫골·명심이·우렁태·어령이·살구머리·덕문이... 바로 그 공간들은 문살과 창호를 통한 빛의 미학이었다. 나는 이 먼 곳에 와 옛날 빛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금의 그것에 고리를 만들고 있다. '뜸', 이 어휘는 너무도 멋스럽게 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정말 깊은 뜻을 담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미술은 바로 이 '뜸'의 작업이 아닐까?" S

에디터 문비송 글 박영택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문성진 어시스턴트 권희재 도움 주신 국립현대미술관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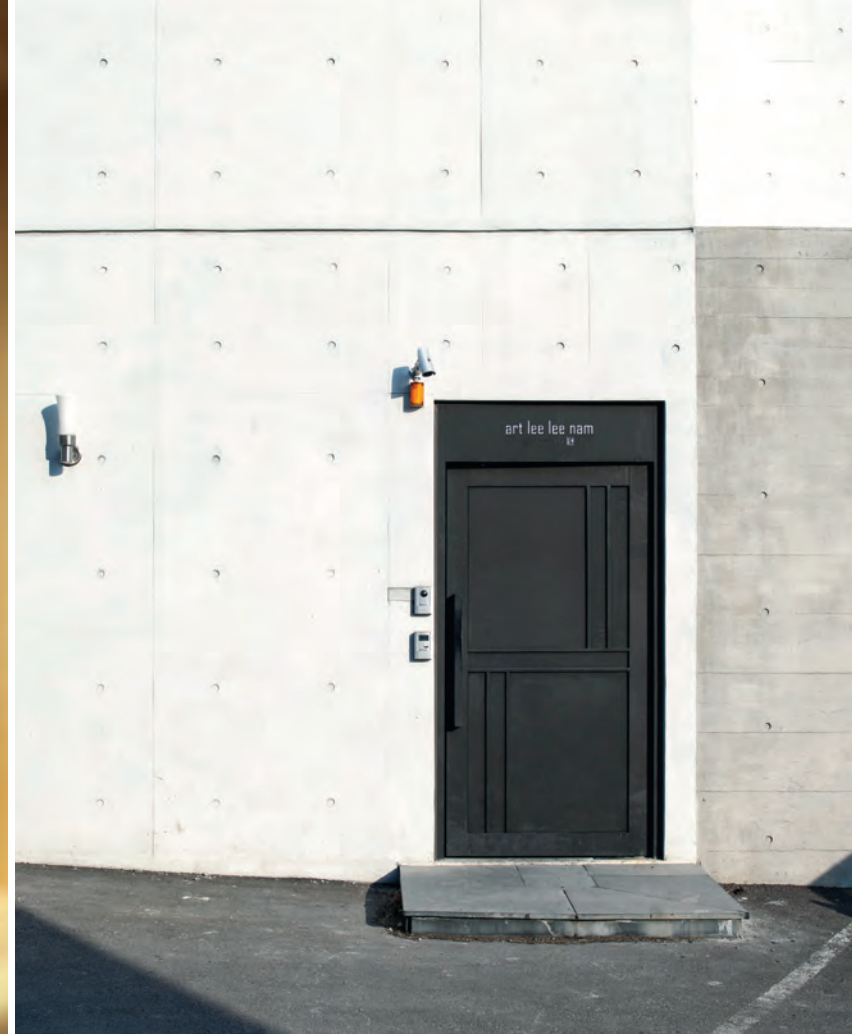
1 비디오에 비친 달과 실타래, 단청 구조를 보여 주는 건축물 등 한국적인 빛이 섬세하게 구축된 거대한 조형물인 〈월인천지〉(2012)의 부분 2,5 '발견된 오브제'는 임춘섭에게 여러 이야기의 흔적들이 쌓이고 채워지는 열린 정을 의미했다. 발길 닿는 주변 환경 속에서 개인의 무의식과 상응하여 건재한 물건인 '발견된 오브제' 시리즈 중 하나인 〈이야기하는 나무-도사〉(2005~2011), 〈대화-사물〉(2005), 3 구조물처럼 설치된 〈무제〉 시리즈 4 한지와 나무로 만든 〈메트로놈〉(2012).



겸재와 고희의 만남을 주선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미디어아트라는 장르를 잉태했다. 오랜 세월 서로를 외면한 채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장르가 만나 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진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전을 텍스트로 삼는 파격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스르는 그의 행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담양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살면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이이남을 만났다.





대학 시절 '예술가'와 '작품'은 별개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배웠다. 걸작을 남긴 대가의 인격이 바닥인 경우도 있어 이런 말이 생긴 것이라. 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했던가. 작품의 명성을 뛰어넘는 인품을 가진 예술가도 있으니 말이다. 이미 그 명성이 한반도 밖으로 번졌음에도 여전히 겸손함과 소박함을 잃지 않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운이 긴 이유는 유연하고 소박한 그의 인품 때문이라.

하얀 캔버스 대신 전원을 끄면 어두운 밤하늘이 되고 마는 모니터를 화폭으로 선택한 작가. 그는 왜 '전통'을 버리고 '파격'을 택한 것일까? 조소과에 다니며 실력을 인정받던 그도 한때는 로텐을 꿈꾸는 수많은 미술학도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듣던 그는 상상조차 못했던 다양한 장르와 파격이 현대미술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무얼 말할 것인가'만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원 졸업 후 처음 맡게 된 강의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던 충격과 조우했다. 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종이에 드로잉과 채색을 할 줄 알았던 학생들이 컴퓨터와 마우스로 만화를 그리는 걸 보고 경악한 것이다. 진흙을 개고 돌을 쪼던 조각가에게는 신세계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작가 이이남의 겸손함과 유연성이 발휘됐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조각상을 만들던 시간은 미디어에 대한 이론과 메커니즘을 배우는 일로 채워졌다.

우리는 파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파격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 수많은 벽에 부딪히며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이남의 경우도 그랬다. 정지된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그의 발상 역시 한동안 주변의 비웃음을 사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계속 진화했고, 결국 2006년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은 관객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아티스트 이이남의 파격은 모니터를 화폭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니터 안에 훼손이 금기시되던 고전 작품을 비틀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어째서 그는 수세기 동안 관객과 평단에 의해 고정된 가치를 부여받은 고전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을까?

“저도 고흐나 고펜처럼 그리고 싶었죠. 그러다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현실과 그들의 작품이 좋다는 걸 안 것이지요.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그들 그림에 쌓인 세월까지 뛰어넘을 순 없더군요.”

한마디로 예술가의 좌절이었다. 하지만 곧 좌절감을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좌절을 안겨 준 위대한 선배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에 매진했다. 여기서도 그의 유연한 성품이 돋보인다. 그가 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작품 만들 때 원작자들에게 인사 한 번씩 하고 하라고.”

조상 덕을 톡톡히 본다고 말하는 이이남 작가. 하지만 고전의 권위에 대한 그의 도전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차치 잘못하면 원작의 훼손이라는 끔찍한 재앙만 남기기 때문이다. 해서 그는 파격적 시도를 하면서 커다란 압박감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원작을 훼손한다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의 시도로 틀에 갇혀 있던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용기의 근거가 된 거죠.”

이렇게 위험성을 극복한 그의 작품에 관람객들이 열광하는 건 또 왜일까? 그의 작품이 단순히 고

“저도 고흐나 고펜처럼 그리고 싶었죠. 그러다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현실과 그들의 작품이 좋다는 걸 안 것이지요. 제가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그들 그림에 쌓인 세월까지 뛰어넘을 순 없더군요.”

전을 비트는 참신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엔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쳐서이다. 그것은 단순히 수백 년 동안 정지되었던 그림이 움직인다는 ‘운동성’ 때문은 아니다. 17세기의 서양 고전이 한국화와 만나는 접점도 여기서 비롯된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그만의 작업이 가능했던 건, 디지털 기술과의 통섭을 시도한 과감함 때문이었다. 그에게 기술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의 붓’과도 같았다.

국제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가 여전히 광주에 머물고 있다는 건 광주 시민들에게 하나의 축복이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도 허락됐다. 때마침 그가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이란 제목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었으니 말이다. 함께 차를 타고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에 서재 얘기가 나왔다. 그의 서재 한 쪽은 책들로, 다른 쪽은 비디오들로 채워져 있다. 어지간한 학자의 서재보다 책이 넘쳐났다.

“영국에 들렀다가 탄광촌을 현책방 거리로 탈바꿈시킨 헤이온와이란 곳에 다녀왔어요. 정말 탐나는 책들이 즐비했죠. 그렇게 책을 사 오는 일이 습관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이남이란 작가를 안 이후 그의 대작들을 여러 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이남의 다른 대작보다 연전에 그의 작업실에서 본 소품, 고희의 <군화>를 좋아한다. 군화에 실사의 비가 내린다. 잠시 후 고희의 젖은 군화 속에서 어린왕자가 수줍게 등장하고, 군화 앞에 고인 빗물 위로 어린왕자의 소행성 B612가 지나간다. 사방 천지가 생명력으로 꿈틀대던 시골 담양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유년기를 보낸 그의 감성이 녹아 있는 작품이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5개의 전시실에 전시된 그의 최근 작품들은 그의 기질답게, 기존 작품들과는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선사했을 뒤상과 백남준을 재해석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 작고한 그의 부모님 영정을 모신 시골의 방을 재현해 놓기도 했다. 여기에도 <고흐>의 군화처럼 눈길을 끄는 작품이 하나 있었다.

<겸재 정선 고희를 만나다>란 제목을 단 작품으로, 3개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측에 있는 한국화 속에서 겸재 정선이 나귀를 타고 가운데 모니터로 향한다. 겸재가 달을 머리에 이고 가운데 모니터의 배경인 네덜란드의 들판을 지나 왼쪽 모니터 속에 있던 고희와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다. 발길을 돌려 고희로 향하는 겸재의 나귀에는 고희의 자화상이 달려 있다. 동서양의 고전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된 것이다.

“저 그럼대로라면 겸재가 아시아 최초의 고희 컬렉터인 거죠? 하하.”

작가와 함께 웃어젖혔다.

새로운 것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그는 또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을까?

“창작은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조각을 전공했잖아요. 해서 지금은 조각의 입체감을 미디어의 특성과 결합시킬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에요.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장인정신이랄까, 노동의 힘을 보여 주는 작품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관객이 작품을 보며 작가가 땀끼나 흘렸겠다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싶은 거죠.”

굵은 땀방울을 우직하게 흘리기보다 씩박한 아이디어 하나에만 매달리는 요즘 화단의 세태를 비꼬고 싶은 것이었을까.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그가 ‘땀’을 흘리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다. S

에디터 최태원 사진 왕태균



맑고 깨끗하게 하는 힘,
그 싹을 틔우다

봄, 몸은 봄바람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처럼 가벼워지고 싶어한다. 겨울에 비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봄에는 열과 독소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신체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축적된 독소는 피부 기능을 저하시키고 트러블을 만들기도 한다.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싶은 소망을 이루려면 콩과 울무에 주목하자.

봄의 기운이 싹튼다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봄의 기운을 민화와 대두에 틈 싹으로 표현했다.





튀긴 울무를 올린 두유 파나코타

두유와 생크림 각 1컵을 팬에 넣고, 설탕 2큰술을 넣어 따뜻하게 데운다. 찬물에 살짝 불린 판 젤라틴 2장을 넣고 섞은 다음 체에 내려 냉장고에 넣고 굳힌다. 물에 불린 대두는 설탕을 살짝 발라 튀겨 낸다. 빵튀긴 울무와 함께 조청을 약간 넣은 프라이팬에 부다가 식혀 굳힌 뒤 두유 파나코타에 곁들여 낸다. 고소하고 단백하고 부드러운 두유 파나코타와 바삭한 청과가 잘 어울린다.



된장소스를 올린 두부꼬치

두부는 소금으로 밑간을 한 후 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지져 낸다. 저염 된장 5큰술에 정종과 미림을 1큰술씩 넣고, 나뭇잎 한 쪽을 같이 섞는다. 꼬치에 꽂아 나뭇잎 소스를 얹어서 낸다. 대두로 만들어진 두부, 된장, 나뭇잎 등 다양한 재료의 조합으로 맛과 영양을 듬뿍 담았다.



불린 콩

사철 가까이 두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두. 대두를 이용해 요리를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콩 불리기다. 깨끗이 씻은 콩 1컵에 물 2컵을 넣고 콩이 2배 정도로 커질 때까지 불린다. 물과 실내 온도, 콩의 크기 등에 따라 불리는 시간이 달라지니 중간중간 살펴야 한다. 불린 콩을 삶아 맷돌에 갈아 두유를 만들고, 두부를 만들고, 메주를 만들고, 콩전을 부치고, 콩밥을 짓고... 콩을 불리는 순간 콩 요리가 시작된다.



콩과 울무로 맑게 하다

3월로 접어들면 유난히 몸이 무겁고 나른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저 포근해진 날씨 탓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낮이 길어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 때문이다. 한방에서는 과도하게 활발해진 세포의 신진대사가 몸에 과잉열을 불러오고 독소를 쌓이게 한다고 본다. 쌓인 독소는 몸을 무겁게 하고, 피부는 각종 트러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때, 식이 섬유가 많은 콩과 울무를 먹으면 몸 안에 쌓여 있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발효된 콩은 장 기능을 도와주고, 울무는 칼로리가 낮아 부담이 없으니 식탁에 자주 올리면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몸속이 깨끗해지면 피부가 먼저 맑아진다. 콩과 울무는 피부에 직접 사용해도 좋는데, 콩과 울무가 가진 세정력과 미백 효과에 대한 믿음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인은 날콩가루로 거품을 내 목욕을 했으며, 흰 피부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겼던 로마인들 역시 콩가루를 이용한 미용법을 즐겼다고 한다. 조선의 장희빈 역시 날콩가루를 애용했다. 숙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날콩가루로 몸을 씻어 피부를 환하고 탱글탱글 가꾸는데 힘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대표적인 미백 곡물로 알려진 울무 또한 사대부와 궁중 여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방약합편>은 울무에 대해 '보건식과 피부 미용에 좋아 여인들의 미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의 물서마귀를 제거하며 노인들의 피부 반점 제거와 곱게 늙는 건강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규합총서>에서도 울무를 '피부 탄력과 미백에 좋다'고 칭송했다. 궁녀들은 울무 가루를 물에 탄 뒤 형겅에 적셔 팩을 했으며, 황진이 역시 울무씨 기름으로 각질을 제거했다고 전해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희고 깨끗한 얼굴, 맑은 피부'는 여성들의 영원한 워너비 아닐까. 맑고 깨끗하게 하는 힘이 콩과 울무에 담겨 있으니 지금 바로 곁에 두자. S

에디터 김희성 푸드아트 오정미 어시스턴트 양정은 사진 이종근 캘리그래피 이규복

* 콩과 울무는 다른 재료들과 어울림이 좋아 예부터 다양한 식재료로 변신을 해 왔다. 떡메주, 된장, 나모, 튀긴 울무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식단을 풍성하게 꾸려 보자.



섬뜩에 매화 향기 하얗게 번지네

봄은 잠깐이다. 꽃이 피어 있는 아주 잠깐. 꽃이 지고 잎새가 푸르러지면 어느새 봄은 사라지고 없다. 맑은 여인의 기운처럼, 하얗게 번지는 꽃향기가 이 봄의 가장 귀한 소식이다. 정갈한 마음으로 매화 향기 맞이하라.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매화(梅花)

-이황(李滉, 1501~1570)

梅萼迎春帶小寒(매악영춘대소한)
折來相對玉窓間(절래상대옥창간)
故人長憶千山外(고인장억천산외)
不耐天香瘦損看(부내천향수손간)
봄을 맞는 매화송이 찬 기운을 띠었기에
한 가지 꺾어 내어 옥창(玉窓)에서 마주 보네
산 첩첩 저 밖에 옛사람의 추억 그리워라
여우고 축나는 천향(天香)을 못 견디리.

前身應是明月(전신응시명월)
幾生修到梅花(개생수도매화)
내 전생에는 밝은 달이었지
몇 생이나 닦아야 매화가 될까.

왼쪽 인삼 미백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이미 자리를
잡은 기미와 잡티뿐 아니라 유발 환경까지 다스려 깨끗한 피
부로 돌려주는 자정미백스팟. 끈적거림이 적은 저점도 에센
스형으로, 넓은 기미 부위에 바르기 편하다.





유춘동(留春洞)

이서구(李書九, 1754~1825)

林花香不斷(입화향부단)
庭草綠新滋(정초녹신자)
物外春長在(물외춘장재)
惟應靜者知(유은정자지)

숲속에 꽃향기 끊이지 않고
뜰에는 풀잎이 푸르러 가네
마음속에 봄은 항상 있으나
오로지 고요한 사람만이 안다네.



황금(黃耆) 성분과 쿨링 지막 어플리케이션이 지친 눈가에 쿨링 미백 효과를 선사하는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 매끄러운 내용물을 따뜻한 손가락으로 녹여 흡수시키고, 내장된 쿨링 지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눈가에 탄력을 부여하는 온냉(溫冷) 아이 마사지법을 통해 눈가를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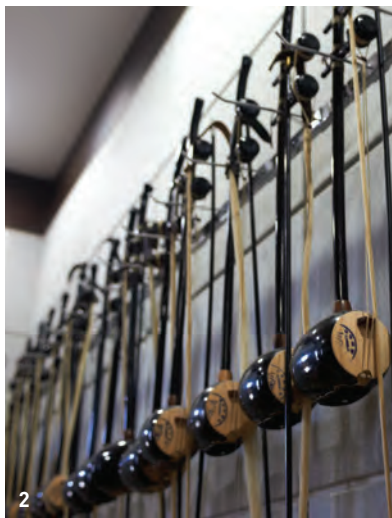


소백산 병풍 아래 앉아 듣는 우리 소리

충북 영동은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자면,
한국 전통음악의 근간이 잉태된 공간이다.
한국 음악의 3대 악성 중 한 사람인 난계 박연의
고향이라서 그렇다. 그곳엔 우리 소리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놀라운 건 이곳에서 국악
축제가 무려 4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군립 국악단이 국내 최초로 생겨,
20여 년 세월을 거쳐 '청년기'로 접어들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1 난계국악단 연주자 백보산(아쟁), 김정훈(대금) 씨가 금강이 굽어보이는 영동의 '호서루'에 올라 난계의 후예임을 뽐내고 있다. 2 박연을 기리는 난계사 앞에는 세계 최대의 북 '천고'가 있다. 지름이 무려 5.54미터에 이르는 천고에는 15톤 트럭 4대 분량의 소나무 원목과 어미소 40마리의 가죽이 쓰였다고.



1 난계국악단은 국악기체험전수관과 국악기제작촌, 국악 박물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2 체험전수관에서는 이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악기 강습을 하고 있다. 3, 4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탄생하는 전통 악기의 제작 과정을 보며 악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으로의 여행이 더 의미가 있다.

“어디 가?”

“영동.”

“아, 강원도. 그런데 영동 어디?”

‘영동’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십중팔구 강원도 영동 지역을 떠올린다. 행정구역상 지명인 영동은 충북 영동을 가리키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오해를 사는 걸 보면 영동이란 지명이 새로 생겨 낯선 것 같지만 실은 신라 때부터 무려 1,500여 년을 같은 이름으로 불린 고토가 충북 영동이다. 아름다운 터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려는 소백산의 의지가 지나쳐 세상에 드러날 기회가 적어서였으리라. 우리 소리의 흔적을 찾아 굳이 그곳엘 가려는 건 고려 우왕 때 이 안온한 땅에 땀줄을 묻은 어떤 인물 때문이다. 말장난을 치자면, 한자로 ‘영동(楡棟)’은 중요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을 지녔다. 그러니 영동을 찾아 영동으로 가는 셈이다.

‘우리 소리’에 ‘충북 영동’을 더하면 답은 난계(蘭溪) 박연이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이름 박연. 왕산악, 우륵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히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짝막하게나마 그를 만나고 나서 길을 떠나자. 사람은 좋은 시절과 자신의 꿈을 믿어 줄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난계는 행운아였다. 성군 세종의 세자 시절부터 함께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세종이 정국이 혼란한 건국 초기,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난계와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알아보고 등용한 능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어떤 흔적을 남겼기에 ‘악성’으로까지 칭송받는 것일까? 여기서 굳이 난계의 공적을 짚어 보는 건 우리 소리의 계보와 갈래 혹은 뿌리에 대한 알량한 공부라도 하자는 생각에서다.

세종에 의해 악학별좌(樂學別坐)에 임명된 그는 상소 하나를 올린다. 신라 이후 전래된 중국 속악인 당악(唐樂)과 그 당악에 대비되는 우리 음악인 향악(鄕樂) 그리고 민중의 음악인 민속악과 궁중 음악인 아악의 율조(律調) 등을 조사한 다음 조사 결과와 함께 악기의 그림과 악보를 실어서 한 권의 악서(樂書)를 편찬하자는 상소를 올렸던 것. 이것이 난계 개인의 참신한 발상이었는지, 천재 세종의 언질이 가져온 결과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연유야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장장 5백년 역사를 이어갈 신생 국가 조선의 음악이 ‘자주성’이란 옷을 입고, 체계화되어 역사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치면 미8군 무대를 통해 유입된 팝송이 K-POP으로 승화되는 과정이라고나 할까. 1430년 악기의 조율을 새롭게 한 난계는 조정의 조회(朝會)에 향악 대신에 아악을 쓸 것을 건의했고, 그렇게 하여 궁중 음악은 우리의 소리로 거듭날 수 있었다.

세계 문화유산이 된 종묘제례악의 뿌리를 내리게 한 난계의 말년은 불우했다. 셋째 아들이 단종 복위에 가담했다 하여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것. 자식을 가슴에 묻은 난계는 3조(朝)에 봉사한 원로라는 이유로 죽임은 면하였으나 파직되어 쓸쓸히 고향으로 발길을 향해야 했다. 그가 땀줄과 노구를 동시에 묻은 고향, 영동의 심천면 고당리 일대는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난계 박연의 기운이 아직도 살아 숨신다. 그의 생기가 멀지 않고, 1973년 조성된 사당 난계사(蘭溪祠)가 품위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다. 뭐, 여기까진 어느 위인의 고향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과 강을 낀 이 한적한 마을에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사당 앞에 위치한 난계국악박물관과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이 엮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3시 30분에 20년 역사의 난계국악단이 전수관 공연장에서 국악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두둥당기 둥당당.”

아담한 전수관 공연장에 입장하자, 연주자들이 가야금 줄을 튕기고, 거문고 줄을 밀치고, 태평소로 공연장의 공기를 밀어냈다가 잡아당긴다. 가야금 산조의 틀을 짰 김창조의 손녀이자 당대 최고의 여류 연주자였던 ‘김죽파’류의 가야금산조가 연주되는가 싶더니, 이내 비틀즈의 〈Let it be〉가 국악기로 변주된다. 객석의 절반을 채운 외국인들을 배려한 선곡이다. 하지만 궁중음악의 기틀을 다진 난계를 기리는 난계국악단의 중심은 역시 정기 공연에서 선보이는 궁중 음악에 있다. 3년째 난계국악단에서 아쟁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백보산 씨는 “대다수 국악단이 관현악 일변도로 연주하는데 비해 저희 국악단은 궁중 음악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1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난계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2 악기제작촌에서 가야금줄을 매고 있는 장인의 손이 아름답다. 3 영동군은 앞으로 다양한 국악기 제작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4 창단과 함께 난계국악단의 수석 연주자로 출발해 국악단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이숙미 행정실장.



음악적 시도를 한다”고 전했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어 불편함도 있었지만 선후배 단원들과 함께 잘 적응해 가고 있다는 그는 ‘이곳 유치원생들이 국악기의 명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 보고 역시 박연의 고향답다’는 생각을 했다고.

공연장이 위치한 전수관에는 숙식을 하면서 악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전수관 건너편에는 그 악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난계국악기제작촌이 있다. 그곳에서 만난 타악기 공방 이석제 대표가 물레에 통나무 하나를 톱을 올리더니, 끌 하나를 들고 장구 하나를 똑딱 만들어 보인다. 숙련된 장인의 솜씨란 이런 것이라고 웅변하듯, 나무는 살아서 물소리 바람소리를 몸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장인의 손을 만나면 악기가 되고, 연주자의 손을 타면 온몸으로 기억해 둔 소리를 음악으로 토해 내는 모양이다. 한 장소에서 국악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을까? 충북 영동의 고당리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평균 수명이 마흔도 안 되었던 시절, 난계는 팔순까지 살아 장수를 누렸다. 그의 기운이 남은 이곳 역시 ‘국악의 고향이자 고장’으로 오랜 세월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S

글 최태원 사진 이은숙

난계군립국악단

1991년 국내 최초의 군립 국악단으로 창단되어 현재도 유일한 국악단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난계군립국악단. '난계의 후예'라는 자긍심으로 뭉친 이들의 활동은 다양하다. 3월부터 11월까지 영동읍 부용리에 위치한 국악단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악기 무료 강습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전국의 크고 작은 무대를 찾아 연간 100여 차례 이상 관객들을 만날 정도로 적극적인 '국악 알리기'를 실천하고 있다. 또 단원 39명(객원·합연 11명 포함)이 지난 2월 19일에는 우리나라 국악단 최초로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창단 당시 수석 연주자로 난계국악단과 인연을 맺은 이숙미 행정실장은 "영동이 한반도의 중앙이듯 전국의 재원들이 연주자로 영입된 난계국악단은 '난계의 역사성'을 전통으로 보존하고, 국악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은 난계시를 중심으로 국악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2015년까지 수용 인원 200명 수준의 숙박시설을 세워, 공연장과 악기 체험관을 오가며 국악의 진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국악 명인들이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명인촌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악기행〉에 소개된 동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QR코드를 찍거나, 설화수 홈페이지의 설화수 매거진 e북을 방문하시면 3/4월호 〈국악기행〉에 소개된 국내 최초의 군립 국악단인 난계군립국악단의 연주, 이영석 작곡의 '방향'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난계 박연을 생각하며 국악의 맥을 느껴 보세요.

10가지 찻자리 이야기

별들의 정원, 대지의 숨결이 다가오다

땅, 물, 바람, 햇살이 돌본 차,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실천의 미학.



차의 정신을 말하다, 정성과 실천.

겨울을 이겨내고 다가오는 봄의 전령사 같은 차나무는 얼어붙은 땅이 꿈틀대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다. 깊은 대지 속에서 꿈틀거리는 봄의 열기를 땅속 깊이 드리운 뿌리를 통해 느끼며 곧바로 뽕얇고 투명한 연둣빛 작은 싹을 틱워 내기 때문이다. 시절을 좇아 핀 차나무의 꽃과 열매 그리고 잎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이 완벽함을 일궈 내기까지 자연이 정성스러운 수고를 다해 싹을 틱웠기에 차를 마시는 우리도 차 한잔을 두고 '차와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정신'을 논하는 것이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선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찻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차를 대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정성을 나눈다는 심정이 더해져야 한다. 찻자리를 준비한 정성스러운 손길과 성실한 자세는 마시는 사람과 대접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정신으로, 아름다운 찻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정성과 손님의 고마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런 아름다운 찻자리에서는 차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차 한잔을 통해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다산, 초의, 추사, 의재, 효당 등 선대 차인들이 일궈 온 차의 정신사에는 격식과 형식이 아닌 인간과 사회를 잇는 정신으로서의 차 문화가 있다. 상호 간의 기본 예절을 지키고,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실천의 미학이다. 각박하고 빠른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여유와 향기로운 선물을 선사하는 차 한 잔에 우주의 법칙이 담겼다.

제주아일랜드드림 그린티와 웨딩 그린티

싱그러운 봄날 은은한 향과 화사한 수색, 찻잎이 어우러지는 차 한 잔 어떠랴. 제주 아일랜드드림 그린티는 제주도의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을 제주 대표 봄꽃인 동백꽃, 유채꽃, 영굴, 감귤의 향으로 화려하게 블렌딩한 차로 그린티 특유의 맛에 다양한 향이 어우러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 웨딩 그린티는 흰색의 자스민꽃과 분홍색의 장미, 파란색의 콘플라워로 신부의 부케를 형상화한 싱그럽고 달콤한 행복을 전하는 차다. 찻잔 가득한 싱그럽고도 달콤한 스위트 부케향이 웨딩의 설레임과 행복함을 그대로 전해 준다. 감성을 한껏 복돋워 주는 핑크, 화이트, 블루의 세 가지 꽃잎이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며 마시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높은 온도에서 우리면 뚝은 맛이 나니 섭씨 60~70도의 따뜻한 온도에서 천천히 우려마시도록 한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도음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장 (02-541-6480) 참고 문헌 <그림으로 읽는 육의 다경, 다경도설>(구기호, 이튼아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어연스님, 현암사)



위 싱그럽고 달콤한 향이 가득한 웨딩 그린티, 찻자 다관 세트는 정소영의 식기장. 왼쪽 제주도의 화사한 봄이 느껴지는 제주 아일랜드드림 그린티, 백자 다관 세트와 차함, 대나무로 만든 포크, 차시, 도자기볼, 겹반침, 테이블 러너는 모두 정소영의 식기장.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첫 걸음

피부결을 칙칙하게 만드는 각질 제거와 충분한
수분 공급이 옳은 답이다.



아침과 낮, 저녁의 기온 차가 큰 요즘이다. 피부가 들뜨고 건조해지기 쉬운 간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당겨 애를 먹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일이 각질 제거다.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잘 지켜 줘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 각질 제거. 피부의 턴오버 주기는 보통 28일로, 재생 과정에서 피부의 죽은 세포층, 즉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부의 정상적인 턴오버 활동을 방해하는 각질이 쌓여 있으면 제아무리 고보습 크림을 바르고 좋은 팩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게다가 피부 턴오버 주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길어진다고. 지성 피부라면 피지와 유분에 모공이 막혀 각질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옛 여인들 역시 각질 제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처럼 피부의 톤을 보정하는 고기능 화장품이 없던 시절에도 여인들의 미의 기준은 뽀얀 피부에 있었다. 이를 위해 옛 여인들은 팔가루로 세안을 했다고 전해진다. 팔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때와 각질을 없애고 전분질이 보습과 탄력을 살려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다. 사포닌은 인삼에 많이 들어 있지만 인삼 가루를 구하기 어려웠기에 팔을 대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쉽게 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로 피부 미용에 사용할 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주일에 두어 번 각질을 제거해야 한다지만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에 자극을 주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부드러운 제품을 골라야 한다. 또 스팀 타월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각질을 풀린 뒤 제거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 다음 각질을 없애야 피부에 탈이 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고, 잡티와 주름이 도드라져 보인다면 각질 제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자. 가장 쉽고 기본적인 피부 관리 단계이니.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박해리공방(02-542-4692),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돕는 현삼 추출물과 해체, 끈포가 들어 있어 맑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 주는 수유크림.

각질 제거의 짝궁, 수유크림

각질이 탈락된 상태로 만족해선 안 된다. 각질 제거 후엔 흡수율이 좋은 마스크 시트나 보습 에센스를 발라주는 게 좋은데, 설화수 수유크림은 수분을 빠르게 공급하고 피부결을 조밀하게 당겨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수분을 활성화하여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 준다. 수유크림으로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다면 설화수 스파의 '에민진정 트리트먼트'를 추천한다. 깨끗한 얼굴로 가꿔 주는 '정안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에민진정 트리트먼트는 차가운 백자와 수유크림으로 에민해지거나 들뜬 피부를 진정시켜 준다. 설화수 스파 전문 테라피스트의 섬세한 손길로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롯데 백화점 잠실점 4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02-411-0262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연극·뮤지컬|

책과 영화의 감동을 무대에서 만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초연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지난해 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레미제라블>을 떠올리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웅장한 무대를 즐겨 보자. 에디터 문비송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 많이 읽힌다는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캣츠> 등을 탄생시킨 세기의 프로듀서 카메론 매킨토시가 제작한 작품이다. 웅장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음악, 상징적이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무대 등으로 19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의 입제와 민중의 저항, 혁명과 사랑 등 인간사의 가장 격정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다. 1985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런던에서 최장기 공연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8년간 전 세계 43개국 3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토니상·그레미상·올리비에상 등 굵직한 상을 70개 이상 받는 등 뮤지컬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뮤지컬 <레미제라블> 한국어 공연의 성대한 막이 올린 포인트홀에서 올랐다. 2,000여명의 자원자 중 7개월간 10회에 걸쳐 카메론 매킨토시가 직접 선발한 한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선보이는 완벽한 하모니, 함축적 의미와 운율을 효과적으로 담은 한국어 가사, 25주년 기념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역동적인 무대와 절제된 영상이 주는 미학 등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 뮤지컬 전용 공간인 블루스퀘어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해 보자.

일시 4월 6일~오픈 런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1544-1555 **관람료**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는 사랑이 두려운 천재 물리학자가 치명적인 매력의 뱀파이어의 유혹에 사로잡혀 파멸로 치닫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뱀파이어라는 매력적인 소재와 인간 본성에 관한 테마를 신나는 락 비트의 음악과 워트 있는 가사로 풀어 나간다. **일시** 3월 9일~5월 26일 **장소**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문의** 02-3444-0677 **관람료** 전석 5만원

연극 <트루웨스트>



연극 <트루웨스트>는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이중성을 다룬 블랙코미디다. 미국의 천재 극작가 샘 세퍼드의 작품으로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로 불리는 토미 리 존스와 피터 보일, 존 말코비치 등이 출연해 화제가 되었다. **일시** 5월 5일까지 **장소** 대학로 SM아트홀 **문의** 1566-7527 **관람료** 전석 4만원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은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감독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라이언 킹>, <미녀와 야수>, <아이다> 등을 작사한 팀 라이스가 공동 작업한 첫 작품이다. 성경 속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 다양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4월 11일까지 **장소** 사뮈엘제이더 **문의** 070-4488-8522 **관람료**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뮤지컬 <아르센 루팡>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 <괴도신사 아르센 루팡>이 뮤지컬로 나온다.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왕가의 보물을 둘러싼 사건과 반전 있는 이야기, 호화 여객선 선상 파티와 세느 강의 다리를 재현한 무대가 기대를 모은다.

일시 2월 14일~5월 5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문의** 02-6002-7547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콘서트|

그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리처드 용재 오닐 - My Way>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1집부터 7집까지의 앨범을 망라한 공연이 열린다.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클래식 스타의 무대. 이번에는 그의 친구들이 함께해 더욱 특별하다.



누군가에겐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의 착한 아들로, 누군가에겐 비올리스트이자 디토 페스티벌 음악 감독으로, 누군가에겐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아티스트로 기억되는 용재 오닐. 그는 비올리스트 최초로 줄리아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비올리스트로는 드물게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을 받았고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바이올린, 첼로에 비해 덜 유명했던 비올라의 인지도를 올린 그의 영향력은 비올리스트로서 7장의 솔로 음반 발매, 총 14만 장 이상을 판매한 기록으로도 입증된다.

레코딩 아티스트로서, 실내악과 클래식의 '공감'을 목표로 한 '양상블 디토' 리더이자 디토 페스티벌 음악 감독으로 영역을 넓힌 용재는 지난해 지휘자로도 데뷔한 바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변과 음악을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MBC 대기획 <안녕? 오케스트라>로 방영되며 음악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치유해 감동을 선사했다.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이 1집 <리처드 용재 오닐부터 <눈물>, <겨울여행>, <미스터 리오소>, <기도>, <솔로> 등 그의 앨범 중 베스트를 모은 <My Way>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을 찾는다. <섬집아가> 외에 <라 로마네스카>,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사운드>, <파사칼리아> 등 지금이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연주를 기대해 본다.

일시 3월 31일 오후 2시, 7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핑크 마니티 콘서트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16장의 앨범을 낸 실력파 밴드 핑크 마티니가 내한한다.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과 재즈, 팝 외에도 칸초네, 삼바, 보사노바 등을 섞어 마티니 카테일같이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3월 20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5만원

제이슨 므라즈 내한 공연



싱어송 라이터 제이슨 므라즈가 한국을 찾는다. 작년 4월에 나온 새 앨범 <Love is a Four Letter Word>에 수록된 곡과 스페셜 게스트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열혈팬을 위한 VIP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일시** 5월 17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문의** 02-332-3277 **관람료** VIP 패키지 25만원 / 스탠딩 R석 13만 2,000원 / 스탠딩 S석 11만원 / 좌석 11만원

스크립트 첫 내한 공연



U2 이후 아일랜드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밴드로 불리는 스크립트가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영국과 아일랜드 차트를 석권하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한 그들의 감성 충만한 무대를 기대해 보자. **일시** 3월 27일 오후 8시 **장소** 악스코리아 **문의** 02-332-3277 **관람료** 전석 11만원

러시아 국립 볼쇼이 합창단 내한 공연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인 볼쇼이 합창단이 내한한다. 러시아 공훈 예술가이며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교수인 레프 칸타로비치와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와 무반주 <할렐루야>, 한국 가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일시** 4월 11~20일 **장소**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2-440-0500 **관람료** R석 5만원 / S석 4만 4,000원 / A석 2만원

미국의 회화, 공예를 만나다 〈미국 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전

윈슬로 호머, 토머스 에이킨스 등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표 작가와 잭슨 폴록, 앤디 워홀 등 미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국 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는 18세기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첫 대규모 전시다. 168점의 미국 회화 및 공예품이 소개될 이번 전시는 지난 300년 동안 미국 미술이 이룩한 예술적 성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잭슨 폴록, 앤디 워홀 등 대표적인 현대 미술 작가들뿐만 아니라 존 싱글턴 코플리, 찰스 윌슨 필, 토마스 콜, 윈슬로 호머, 토머스 에이킨스, 메리 카사트, 찰스 데무스, 조지아 오키프 등 미국 미술사의 주요 화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시는 '아메리카의 사람들', '동부에서 서부로', '삶과 일상의 이미지', '세계로 향한 미국', '미국의 근대', '1945년 이후의 미국 미술' 등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미국 역사의 흐름과 함께 미국 미술의 시대적 특징을 담았다. 또한 6개 테마로 구성된 공예 작품들은 미국의 장인들과 디자이너들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 주면서 미국 미술의 시대적 변천과 지역적 특색도 소개한다. 미국 미술 3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미술 300년; Art Across America〉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휴스턴미술관, 테라 미국미술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테라 미국미술재단이 주요 후원자로 나섰다.
일시 5월 19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1661-2440 **관람료** 성인 1만 2,000원/ 중·고생 1만원/ 초등학생 8,000원/ 유아(48개월 이상) 5,000원/ 65세 이상 6,000원

〈감성공감 2013〉전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전시가 열린다. 전시 작품의 움직임과 소리는 관람객에게 전달되어 내면에 동요와 떨림을 만들어 낸다. 시간과 기억 같은 추상적 개념을 작가만의 조형 언어로 시각화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19일까지 **장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문의** 055-340-7009 **관람료** 성인 1만 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

체코 프라하국립미술관 소장품전 〈프라하의 추억과 낭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정치 사회적 격변 속에서 구축된 체코의 근대 미술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프라하국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체코 근대 미술의 거장 28명의 회화 작품 107점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일시** 4월 21일까지 **장소** 덕수궁미술관 **문의** 02-6273-4242 **관람료** 성인 1만 2,000원 / 중·고등학생 8,000원 / 초등학생 5,000원 / 미취학 아동 4,000원 / 65세 이상 5,000원

〈세계 팝업아트 2013〉전



3차원 시각 예술인 팝업 아트를 광고, 무대 디자인,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은 벤자미니, 마틸다니베, 필립 위제 등 팝업 아트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팝업 작가들이 직접 지도하는 '팝업 디자인 워크숍' 등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시** 3월 31일~5월 19일까지 **장소**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730-4360 **관람료** 무료

〈끈질긴 후렴〉전



과거 백남준이 그려하였듯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기보다는 반복과 되새김을 통해 사회적 문제들을 꾸준히 수면 위로 드러내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가의 정치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전시회이다. **일시** 6월 16일까지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문의** 031-201-8530 **관람료** 성인 4,000원 / 학생 2,000원

단순하지만 강력한 능력 〈습관의 힘〉, 〈일 1식〉

세상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난다. 성공은 높은 지위와 명예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과에, 다이어트에, 또는 지속적으로 중독된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욕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과 실행력이다.



〈습관의 힘〉은 〈뉴욕타임스〉 심층 보도 전문 기자였던 찰스 두히그가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발로 뛰어 밝혀낸 습관 사용법이다. 이를 위해 7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수십 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300여 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를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습관이 개인적인 삶을 넘어 조직, 기업, 사회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저자는 습관의 원리를 이해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와 세상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 1식〉은 건강한 식습관의 힘을 믿는 이가 도전해 볼 만한 '내 몸을 살리는 52일 공복 프로젝트'다. 우리 몸이 원하는 가장 최적의 식사법은 1일 1식이라 말하는 저자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일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 온 우리에게 하루 한 끼 식사가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역설한다. 10년 전부터 '일 1식' 생활을 해온 저자는 56세의 나이에도 혈관 나이가 23세에 불과하고 매끈한 피부와 질퍽한 허리로 공복의 효과를 몸소 증명해 보이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독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매년, 매달 우리의 다이어티엔 새로운 목표 혹은 10년 전과 동일하지만 이름만 바뀐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가득 채워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는 삶을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의식과 꾸준히 실천하는 실행력이다. 〈습관의 힘〉 지은이 찰스 두히그 **출판사** 갤리온
〈일 1식〉 지은이 나구모 요시노리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나에게로 떠나는 마음의 여행 〈마흔앞이〉



부부 간의 고독을 다룬 〈함께 또 홀로〉로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한 크리스토프 포레의 최신작. 정신과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병동 상담 전문의기도 한 저자가 응의 분석 심리학을 기초로 중년을 앞둔 이들에게 마음의 여행을 안내한다. 그는 아픔을 직시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지은이** 크리스토프 포레 **출판사** MID

깊이 읽기의 기술 〈리리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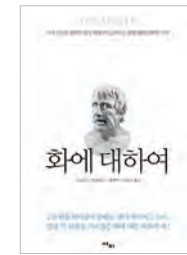
하루에도 몇 백 권씩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읽어야 할 책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일까?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대표적인 고전 등 다시 읽기와 깊이 읽기를 통해 만나는 자아와 성장의 기록, 책 읽기의 즐거움을 재발견해 가는 책. **지은이** 퍼트리샤 마이어 스펙스 **출판사** ㈜다산북스

이것이 진짜 읽이다 〈한국의 모든 지식〉



모내기라는 혁명적인 농사법을 둘러싼 정치경제학, 아홉 번 정원 급제를 한 조선 최고의 천재 율곡 이이 등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명쾌하게 말해 준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후손들에게 어떤 삶과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지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깊고 넓은 지식을 다룬 저자의 날카롭지만 따뜻한 해석이 돋보이는 책. **지은이** 김홍식 **출판사** 서해문집

세네카가 말한다 〈화에 대하여〉



후기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2천 년 전에 쓴 '화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다. 인간 심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지녔던 그가 할 잘 내는 동생에게 들려주었던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왜 화를 내는지, 화는 억제할 수 있는지 등을 역사 속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말해 준다. **지은이** 루키우스 안니우스 세네카 **출판사** 사이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삼총사>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가 화려한 무대 연출,
마음을 울리는 음악, 뮤지컬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 뮤지컬 작품으로 찾아온다.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삼총사>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4월 중

공연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 티켓 R석 6명 (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공연 현장에서
드립니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는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프랑스 왕의 친위대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사람의 모험과 우정을 박진감 넘치게 그린 작품이다. 1844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168개국에서 73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약 1억 3,500만부가 팔린 프랑스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다. 소설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지금도 영화, 만화 등으로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뮤지컬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에 다채로운 음악과 춤을 더해 각색한 작품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바로크, 로코코 양식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화려하고도 웅장한 무대와 감미로운 멜로디의 'All For Love' 등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곡들이 어우러진 공연은 어린 시절 읽었던 소설 <삼총사>와는 또 다른 감흥을 선물할 것이다. 거기에 아크로바틱과 무술, 검술 등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기술을 연마한 배우들이 펼치는 검술 장면은 삼총사의 백미라고 꼽힐 정도로 박진감 넘친다.

이번 무대에는 <삼총사> 초연 멤버인 신성우, 엄기준, 김법래, 민영기와 더불어 뮤지컬 스타 남경주, 김소현이 출연한다. 또한 슈퍼주니어의 규현, 2PM의 준케이, 2AM의 이창민, 원더걸스의 예은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과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

에 받은 김민종이 새로이 합류해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뮤지컬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뮤지컬 <삼총사>!

3년 동안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 초연 배우들과 최고의 실력과 배우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와 감미로운 앙상블은 이번 충무아트홀 무대에서도 그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S

에디터 문비승 **도움 주신 곳** 엠뮤지컬아트(02-764-7858)



The Journey to Holistic Beauty 상생의 미학이 펼치는 설화수의 그림 같은 미의 여정

한국의 미의식에 뿌리를 두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설화수의 글로벌 스토리를
팝업 북으로 만나다.



엄선된 한방 성분과 최첨단 기술, 전통 기법을 통해 여인들의 근원적 아름다움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온 설화수. 선인들의 지혜와 전통적 미의식에 대한 통찰, 현대의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들로 내로라하는 뷰티 브랜드들 틈에서 까다로운 한국 여인을 사로잡은 지 이미 오래. 이후 2004년 홍콩을 시작으로 2010년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인 뉴욕의 대형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중국에 이어 2012년 싱가포르, 대만, 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설화수의 제품에 깃든 전통 미감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아름다움의 본질은 화려한 외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정갈한 아름다움, '외면과 내면의 합일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설화수의 철학이 동서양 여인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팝업 북(Pop-up Book) 《The Journey to Holistic Beauty》는 이렇듯 세계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설화수가 진출한 국가의 랜드마크와 그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들의 일러스트로 채워져 있다. 이 아름다운 팝업 북은 글로벌 매장을 포함해 설화수 전 매장에 비치되어 고객들에게 설화수의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매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팝업 북답게 책을 펼치면 홍콩의 화려한 밤거리,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고층 빌딩, 중국의 만리장성, 싱가포르의 머라이언상 등의 그림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며 각 나라와 도시의 상징물들이 아지작기하고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없던 조선 시대에도 외국을 여행하며 굳건한 자의식으로 넓은 세상을 읽어 내던 선조들의 발걸음을 닮은 설화수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S





page 26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The noble scholars and women of Korea believed that adjusting to nature and living with it was the essence of wisdom and life. This issue explores the noble families' view of nature as reflected in the paintings of libraries, flowers and birds, and landscapes, and by the flower walls with the everlasting beauty of nature all year round.



page 38 | **See the Detail**

<See the Detail> is the story of Korea's beautiful landscapes as told by a documentary photographer. Let's find the premium spaces created by the Joseon Dynasty and carefully observe the Korean aesthetics as new and powerful images. This issue explores Beolseo Garden, where noblemen stayed to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or for meditative training for personal development, from a new perspective. It takes you on a journey to the premium spaces of Joseon's spirits, including Bogildo Buyong-dong Garden, Dasan Chodang, and Sosoaewon.



page 52 |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introduces the philosophies of brands that have created world-class design heritages. Listen to the story of their timeless tradition that made their brand philosophies cultural heritages. This issue introduces Richard Ginori, the Italian premium designer tableware brand with a 300-year tradition, and takes you on a tour of the factory of Richard Ginori, who has worked with a number of renowned art directors, including Gio Ponti, to create artistic tableware based on a long tradition.



page 56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introduces <Choong Sup Lim: Luna and Her Thousand Reflections>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outh Korea. This exhibition was planned to introduce the major and unrepresented artworks of Choong Sup Lim, one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artists to be active abroad, and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learn all about the contemporary art of Lim, the pioneer of Korean installation art.

page 62 | **Meet the Artist**

<Meet the Artist> introduces young artists who have come to be widely loved in South Korea and abroad by creating modern artworks that reinterpret Korea's tradi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s. This issue introduces media artist Lee Nam Lee, known as the second Nam-jun Paik with his media screens that add visual elements to traditional paintings with poetry to attract attention in South Korea and abroad.



page 68 | **The Thesaurus of Sulwha**

<The Thesaurus of Sulwha> is the story of the ingredients in Sulwhasoo products that integrate the essence of traditional Korean herbal science. Sulwhasoo contains ingredients such as ginseng, pine needles, soy, and mugwort. The Thesaurus discusses the combin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beauty where the precious ingredients of Sulwhasoo are ingested through food art and applied through cosmetics. This issue introduces food performances using soy and adlay.



page 78 | **Trip of Korean Music**

<Trip of Korean Music> - the column in search of the origin of Korean music. The story of Korean music written amongst the landscapes of Korea in different seasons. This issue visits Nangye Korean Music Company, which is promoting the music of Yeon Park (Nangye), one of the three traditional musicians of Korea, in his hometown in Yeongdong, Chungcheongbuk-do. Experience the beautiful landscapes of Yeongdong, the home of most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in Korea, with Nangye Korean Music Company and the musical instrument factories.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introduces Jeju Island Dream Green Tea, with the beautifully colorful flowers of spring, and Wedding Green Tea, for love birds. Listen to the story of the Korean ancestors who discussed tea, people, and spirits over a cup of tea.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3년 4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3월 30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3년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지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윤조에센스 10명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촉촉함을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해 주는 한방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첫 단계에서 바르면 메마른 피부에 윤기를 부여해 다음 단계의 흡수력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의 제품입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 6명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을 각색한 뮤지컬 <삼총사>의 공연 관람권 12장(1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4월 중에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충무아트홀 공연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92페이지 참조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10명)

- 구순애 경남 창원시 상남동
- 김숙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김영미 인천 부평구 부평동
- 노경희 충북 충주시 용산동
- 민수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박현수 광주 동구 산수동
- 안수연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윤정실 부산 사하구 다대2동
- 이민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채우정 서울 강동구 성내동

뮤지컬 <아이디> 관람권(3명)

- 변귀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
- 최희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황세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2월호 당첨자 선물은 3월 31일까지 보내 드립니다.